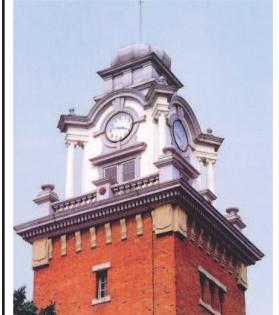




時計塔

SIGE TOP



2025년 1월 20일

서울大學校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發行

제52권 1호

5501 Merchants View SQ, #810, Haymarket, VA 20169
Tel: (516) 365-5500
snucmaa@yahoo.com

발행인: 南明鎬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英一
徐亮
羅斗燮
徐仁錫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蘆鎔冕
金炳哲

www.snucmaaus.org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제39차 연례 학술대회

April 10 - 13, 2025

The Westin Tysons Corner Hotel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의 제39차 학술대회가
지난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 걸쳐 열렸던 버지니아 워싱턴 교외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참석하셔서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 동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별세하신 동문 부인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등록비는 무료입니다. 몇 분의 부인들께서 이미 등록하셨습니다.

President 남명호(81) Convention Chair 장세권(01) Scientific co-Chairs 채영광(02), 김종오(04) Non-CME Chair 서귀숙(84)

신년사



회장 남명호(81)

미주 동문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나요?
2025년, 을사년은 지혜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과 가족들께 평화
와 건강,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은 전 세계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전쟁이 올해는 빠르
게 끝나고, 인질로 잡혀 있는 모든 이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의 의료대란으로 인해 미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젊은 동문들이 많아
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메일을 통해 많은 미주 동문들께서 이들에게 격려와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창회에서 새로 시작한 그랜트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젊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입니다. 또한 이번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격년제로 진행될 학술대회에 많은 학생들과 수련의들이
oral presentation을 하기로 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이 선후배님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제목으로 일찬 CME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Inova Schar Cancer Institute (이노바 암
센터)에서 피부암 전문 스페셜리스트로 활동 중인 장세권 동문(2025년 학술대
회장)과 여러 젊은 동문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신
고 김영애 여사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해 주신 non-CME 프로그램도 서
귀숙 동문이 마무리 작업과 학회 중 진행을 맡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항상 수고
하시는 제이미 김 사무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7월 시작 이후, 아직 부회장, 총무, 재무 등등 임원진이 완전히 구성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은 동문들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랜트 담당: 강민종(Yale) 박혜성(Dana Farber Cancer Institute at Harvard), 박계영(U. Of Chicago), 이상민(서울대 의과대학).

*2025년 학술대회 담당: 장세권(Inova Schar Cancer Institute), 채영광
(Northwestern), 김종오(Baylor College of Medicine), 고 김영애 여사(김
성환 전 회장님 부인), 서귀숙(Northwell Health), 신규호(NYU-Buffalo,
CME), Dr. Metchler (NYU-Buffalo, CME)

* Green Project 담당: 염선영(한국 동창회 미주 담당), 허원제(Yale)

* 장학위원회: 이지재(Columbia)

* Senior advisors: 한승신(NYU-Syracuse), 서윤석(현 시계탑 편집장),
김자성(LA-acting 재무)

이외에도 여러 동문들께서 매우 바쁜 가운데에서도 귀한 시간을 조개서 불철
주야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2025년부터 서울의대와 미주동창회가 공동 주관하는 한미 리서치 펀드
와 서울의대 총동창회와 미주동창회가 공동 주관하는 한미 협력 펀드가 4월 학
술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지속되도록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은 학장
님과 한규섭 동창 회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개월 후에 다가올 학술대회에 많은 동문 여러분께서 동참하셔서 젊은 동문
들이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인사를 대신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신년사



편집장 서윤석(68)

을사년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모국에서는
의료대란으로 많은 학생들과 동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양극화된 정치적 문제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슬픈 것은 지난 일 년 동안에 미국에서는 약 30여 명의 동문
(배우자)들이 연로하셔서 태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12월 13일에는 우리 북
미주동창회를 위하여 수십 년간 지대한 공헌을 한 수필가 권영애(김성환 71의
부인)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은 투병 중에서도 4월 학회를 몇 달
남겨두고 Non-CME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셨습니다. 정중히 두 손 모아 여사
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시계탑 신문이 1974년 (노용면 초대 편
집장) 창간 후 50년 동안 한 번도 결호없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반세기 간의 많
은 역대 편집위원님들과 동창회 임원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번
에는 문집 7집인 시계탑 창간 50주년 기념 문집-화집을 완성하여 인쇄 중에 있
습니다. 4월 초까지는 서적이 미국에 도착할 것이며 4월 학회에 참석하시는 분
께는 출판기념회 행사 시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참석을 못 하시는
미주 동문들께는 4월 호 신문과 함께 발송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0년마다 되풀이되는 을사년이지만 우선 역사적
으로 수치스러운 1905년의 을사늑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의 을사
년인 1965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전투 병력을 파병하기 시작한 해이며 그 긴
10년이 지속되던 월남전이 진행되던 때입니다. 그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피와
땀으로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고 우리 동문들도 그 전후로 대부분 군 복
무 후에 미국으로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중에서 1964학년 졸업 동문이 미국으
로 가장 많이 (87명, 졸업생의 66%)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각 학년마다
졸업생의 50%에서 70%까지 오는 경향이 계속되더니 이민정책의 변화로 1977
년 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20여 년간에 1,200명이 미국
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약 950명의 동문들이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그 대다수가 이제는 연령이 70세 이상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앞
날에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계탑의 필진과 독자가 앞으로 5년 사
이에 더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번 의료대란으
로 다시 젊은 동문들이 많이 미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기대해 봅니다.

국내외 동문 여러분, 우리 편집회는 창간 50주년 기념 문집-화집 발행은 물
론 지난해에 9년 만에 미주 Direcroy-2024 발행을 했습니다. 수시로 인적 사
항이 변화되는 현실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법규정과 전자화 되어가는 편
집 과정에서 그 책자에 다소 오류가 발생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번 1월 호에
교정하여 따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시계탑 신문은 주광국, 송경민 동문이 운영하는 Website와 함께 우리 동창
회의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현 편집위원이신 노영일, 김명원, 서량, 서인석,
나두섭, 서귀숙, 박은경 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40여 년간 같이 수고하는 황창근 사장님과 김 사무장님의 협조로 가능한 것입
니다.

시계탑을 많이 사랑하시는 국내외 독자 여러분, 슬기로운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버지니아 지부 소식

Fairfax VA의 Breaker Restaurant에서 2025년 1월 15일 신년모임이 열렸다.

개회 후 조병선(71) 동문의 선창으로 모두들 기립하여 교가 제창으로 시작되어 남명호(81) 동창회장의 4월 학회에 대한 설명과 장학기금에 대한 설명, 이어서 제이미 김 사무장의 Registration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서울에서 인쇄가 완료되어 오고 있는 시계탑 창간 50주년 기념 문집-화집에 대한 서윤석 편집장의 보고가 있었다.

아직도 환자를 진료하시는 이종국(58) 님을 비롯하여 김부근(58), 한달수(59) 님과 고 임낙중(59) 부인이 참석하여 22명 동문 부부를 비롯하여 총 40명이 모여서 덕담을 나누었다. 사회자 주광국 부부와 박인영(75) 님의 농담 시간을 보내고 웃음의 꽃을 피웠다.

지역 동창회를 6년간 맡았던 68년 졸업 회장단 책무를 4월 학회가 끝나면 5월

부터는 조병선, 박동수, 배성호, 양성훈 등 동문수가 다음으로 많은 71년 졸업 회장단이 맡을 것이다. 지난 6년간 경제적으로 재무관리를 맡았던 신용계(68) 님의 노고에 모두들 감탄하면서 그 재무 인수인계도 학회 후 그때 있을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들 2025년도 서울의 대달력과 학술대회 신청서를 받고 식사 후 회의를 마쳤다.

참가한(준정생략) 동문들은 이종국(58) 김부근(58) 한달수(59) 진창건(61) 고영희(63) 이중희(65) 유달(67) 주광국(68) 김주평(68) 신용계(68) 김진홍(68) 김철(68) 김희주(68) 서윤석(68) 박수웅(69) 조병선(71) 배성호(71) 박동수(71) 유영준(74) 박인영(75) 배영훈(75) 남명호(81 일찍 떠남) 등이다.

*참고로 추운 날씨에 자동차에 배터리에 이상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었다. 점프 케이블을 할 때 정상 차의 붉은 손잡이+를 고장 난 차에도 붉은 손잡이를 +에 연결하여야 됨을 상식적으로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진촬영; 김 사무장, 글; 편집인



김명원(68) 작: 2025년 을사년



애틀랜타 지부 소식

서울의대 애틀랜타 지부는 선우건영 동문 환송을 겸해 동창회 창립모임을 2022년 8월 5일 청담식당에서 개최 함으로 발족하였습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동창회는 일년에 두 번 식사모임과 두 번의 골프모임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종석(60) 회장, 전영성(67) 총무, 백낙윤(70) 회계가 수고 하셨고 2024년부터는 정양수(66) 회장, 한영수(67) 총무, 유우영(68) 회계가 앞으로 2년을 수고할 것입니다. - 총무 한영수



DIRECTORY 2024 교정사항

1. *가 삭제 되어야 할 곳

- 92p 1965년 졸업 임현재
- 20p 45대 총무 김영애 (1971년 졸업 김성환 부인)
- 146p 1979년 졸업 이상강 (현 미주서울대학교 총 동창회장)

2. 주소 변경과 바로 잡은 전화번호

- 64p 1961년 졸업 진창건 전화번호 (256) 238-8608 부인 김경자
- 110p 1968년 졸업 서영일 전화 cell (248) 210-9504
- 203p 임현재 1959년에서 1965년으로
- 115p 1969년 졸업 서량 이메일 변경 StickPoet@hanmail.net
- 121p 1970년 졸업 장현식 changhs53@gmail.com (313) 570-2998
- 188p List of Members by Korean Name 1965 박수안 추가

3. 새로 이사온 동문추가

- 1967년 졸업 피수영 PI, Soo Young, Pediatrics Neonatology
#1402 3342 Orwell Way Cumming, GA 30041
이메일 sypineo@gmail.com 전화 (9570) 737-0161
- 1968년 졸업 김태기 Kiehm, Tae-Gee, Endocrinology, 부인 신희정
019 Calle Stellare, Rancho Palos Verdes, CA 90275
전화 574-286-5730 이메일 tkiehm@yahoo.com

4. 역대 회장단 인적사항 확인

- 26p 45대 총무 김홍서(69), 김영애
- 49대-52대 총무 김성환(71) 김(권)영애 부부

5. Directory-2024 발행 후 작고하신 동문들 *표 추가

- 김응식(55) 김경태(55) 오세근(57) 강상진(59) 이영모(59) 김영환(60)
- 이효빈(60) 이상일(60) 전희근(60) 서휘열(61) 라찬국(64) 박희옥(67)
- 김성렬(68) 김정웅(68) 문광재(68) 고기영(71) 이선택(74) 유준해(77)

총 부부를 에스코트해온 심완섭 부부를 포함한 18명의 동기 부부가 뉴저지 Englewood Cliffs에 위치한 "바다 이야기" 식당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티네에 있는 Homewood 호텔로 자리를 옮겨 와인 잔을 부딪치며 뜻다한 추억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다음날은 아침부터 비가 쏟아져 야외 행사는 생략하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한국인 가이드의 도움으로 전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스쳐보냈던 그림과 조각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람하니 새삼 새로웠다. 70대 중반 노인네 부부 열댓 명이 혹시 놀칠세라 손목을 꼭 잡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을 사진에 담고 있으려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서로를 보듬어주는 훈훈함에 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기대 이상의 즐거움이었던 2박 3일의 꿈같은 class reunion 이었다. 앞으로 몇 번이나 이런 만남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모두 공감을 했는지 졸업 55주년 행사 이전에 한두 번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12월 초에 귀국한 영총에게서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다. 회장단 만장일치로 내후년 3월 일본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다는. 벌써 여러 명이 예약을 한 것을 보면 친구들과의 만남이 무척이나 그리워지는 그런 나이가 되었나 보다.

서인석 (73. 대뉴욕 지부)



12월 27일 낮에 Inova로 observership 오게 된 안예린, 유병민(23년 졸업)을 위해 Inova에 근무중인 남명호 회장과, 강가나 동문이 환영만찬을 하였습니다.
사진은 좌측부터 남명호 회장, 강가나, 안예린, 유병민, 장세권





을사년(乙巳年)을 맞으며

이덕승(60, 남가주)

2025년(음력)은 을사년(乙巳年)으로 60간지(干支)의 42번째 해로 푸른 뱀띠의 해가 됩니다. 푸른 뱀은 시작과 발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영장류에 속하는 모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뱀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뱀은 번식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온화한 동물이어서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색상의 무늬와 가늘고 길게 늘어진 몸통으로 자기보다 몇 배나 큰 먹이를 입안에 넣고 천천히 삼키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뱀은 다리가 없이 진화한 독특한 파종류로 전 세계에 3천5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크기와 색깔 그리고 독성의 유무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뱀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성장할 때마다 허물을 벗는 것으로 재생(再

생)과 영생(永生)의 신(神)으로 인식되었고 새끼를 많이 낳는 것으로 재물(財物)과 풍요(豐饒)의 동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뱀은 지혜(智慧)와 치유(治癒)의 상징으로 태양과 예언의 신인 아폴론의 아들이자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가 가지고 다녔다는 뱀이 휘감겨진 지팡이는 질병 치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호나 군의관의 배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두 갈래로 갈라진 허리를 날름거리면서 사람을 노려보는 듯한 차가운 눈초리의 모습에서 뱀은 유후의 사탄으로 추락되어 아담과 이브를 애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교활한 동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뱀은 주로 단독으로 생활을 하지만 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김웅식(55) 동문: Neurological Surgery로 활동하시다 지난해 8월 9일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부인 전경애 여사께서 소정의 협찬금과 함께 알려 오셨습니다.

김해암(58) 동문 부인 Dr. Hazel Goodwin Kim께서 11월 9일 별세하셨습니다.

My wife Hazel Goodwin kim passed away early morning Saturday Nov 9th at a hospital due to cardiac arrest during the treatment process.

She was born in Norwood MA, a suburb of Boston and she graduated McGill University Medical College. She was trained in Brooklyn at NY Downstate Medical College hospital and specialized in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She married Dr. Hae Kim psychiatrist and psychoanalyst associated with Cornell University Weill Medical College and has 3 children and 5 grandchildren.

Memorial service is to be held at her church, The First Congregation Church in Rockaway Beach, Queens on Friday 11/22/24 Hae Ahm Kim'52

이영모(59) 동문: 소아외과 의사로 50년 이상 여러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셨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디트로이트 한인장로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시다 지난 12월 1일 별세하셨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상연 여사와 네 자녀 부부와 열 명의 손주.

전희근(60) 동문: 필라델피아에서 Radiology를 개업하고 필라지역 동창들의 대부분으로서 동창 모임도 지난 10월까지 주관하셨습니다. 필라 한인연합교회 장로로 의료봉사, 교회 활동 등으로 항상 바쁘게 지내시다 12월 15일 소천하셨습니다.

라찬국(64) 동문: General Surgery 전문의로 코네티컷에 거주하시다 지난 10월 20일 별세하셨습니다.

박희옥(67) 동문: Jefferson Medical College에서 산부인과 교수로 은퇴한 후 뉴저지에서 거주하시다 심장판막 수술의 후유증로 지난 12월 24일 별세하셨습니다. .

김성환(71) 동문 부인 김(권)영애 여사께서 지난 12월 13일 별세하셨습니다. 김영애 여사는 수필가로서 시계탑에 많은 기고를 해 오셨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동창회의 총무 역할을 수행하셨으며 또 수차례 학술대회의 Non-CME를 맡아 성공적으로 해오셨고 특히 오는 4월에 개최될 학술대회도 준비 중이셨습니다.

이선택(74) 동문: 지난 2023년 11월에 별세하셨다고 가족께서 전해왔습니다.



서휘열 (61) 동문을 추모하며

내 사랑하는 친구 휘열이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통화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서로를 ‘동생’이라고 부르던 날들이 얼마나 그리울지 모르겠다. 한 번은 휘열이 “나는 인생에서 하루도 일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선언했는데,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진심 어린 웃음을 자아냈다.

휘열은 자연을 자신의 교회로 여긴 열렬한 조류 관찰자였다. 그는 지역 조류 관찰 단체와 함께 케이프 메이에 새를 관찰하

러 다녔고 우리는 여러 차례 함께 조류 관찰 여행을 갔다. 그는 나에게 리오 그란 데 벨리 조류 관찰 축제를 소개해 주었고 1994년에는 우리 둘이 함께 참석했다. 그곳에서 나는 정말 아름다운 새들을 보았고 아주 흥미로운 축제였다.

2001년 여름, 휘열, 혜수, 그리고 우리 부부는 뉴멕시코로 여행을 갔다. 원래 나의 또 다른 단짝인 흥과 그의 와이프 샐리 조와 함께 할 계획이었지만, 비극적으로 흥은 그 봄에 폐암 진단을 받아 취소해야 했다. 그럼에도 샐리는 우리에게 여행을 가라고 격려해 주었다. 우리는 뉴멕시코의 매혹적인 장소들을 여행하였으나 그 여행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은 영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흥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곳은 그를 기억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휘열, 나는 항상 우리의 우정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 박승균(61)

사진: 서휘열 선배님을 기리는 남성합창단과 조병선(71) 독창, 참석한 동문들.



식기가 되면 여러 마리가 모여서 상대를 골라 짙짓기를 하는데 교미 시간이 무려 4-8시간이나 지속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뱀이 남성들이 선호하는 스테미너의 심벌로 간주되고 있는데 실제로 뱀이 지니고 있는 약효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고 보니 아마도 뱀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으면서 재생하는 능력과 장시간의 교미 시간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 뱀이 정력 강장제로 널리 알려졌던 시기에는 뱀을 전문으로 잡는 땅꾼과 뱀탕집이 성행했었습니다. 심지어는 태국과 대만에서 코브라와 줄꼬리뱀까지 수입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다행히도 한국 정부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뱀을 전문으로 잡는 땅꾼과 밀렵꾼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1961년도에 있었던 일로 기억이 됩니다. 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육군

군의학교에 입대하였고 임관 후 휴전선에서 2Km 정도 떨어진 최전방 초소(GOP)에서 대대 의무 지대장으로 군 복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선임 하사를 비롯해서 15명의 위생병이 있었는데 그중에 ‘뱀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A 병장이 있었습니다. A 병장은 뱀박사

Eulogy for Chan-Kook Rha



“I think I’m indestructible.”

That’s what Chan-Kook told Susan this summer, with his big, warm smile, and that twinkle in his eye. He was 86 years old. He had been battling cancer for five years, found it painful to eat and walk, and had been widowed from Young-Sook Lori, as many of you know her the love of his life, for over four years.

Yet there he was. Thrilled to be alive. He had things to do. Pictures to take. New things to learn.

Lessons to pass on. People to care for. He felt indestructible. He nearly was.

When I asked Susan what she wanted me to share about her father today, she said simply, “I want you to share everything that he was.”

I wish that I could. I wish every one of you could have known Chan-Kook as well as his daughters did, or his closest friends. You’d be astonished. Inspired. Heartbroken. Grateful.

You’d understand what it means to be truly, fully alive.

While I can’t share everything he was, I can share the essence of what made him unique - In the real sense of the word. Singular.

For me, what made Chan-Kook like no other came down to three qualities:

- His kindness and generosity
- His uncontrollable, infectious joy for life
- And his never-ending drive and determination

GENEROSITY

I learned early on never to compliment Chan-Kook on anything he was wearing or owned.

If you were the bright child of a community member, ready for college but unable to afford it, Chan-Kook Lori, might quietly pay your tuition, as if you were one of their own.

He and Lori were blessed with success, and their generosity knew no bounds. They, themselves, lived modestly. They found far more joy in giving than keeping. Even in his final weeks he was still carefully clipping coupons.

Chan-Kook’s dedication to caring for others defined him much more than his material generosity. He lived his life in service to others.

The Rha house was open to all.

JOY.

His huge heart was paired with that megawatt smile. He had so much joy in him, he couldn’t contain it all, and he needed us to help him carry that load. He loved dancing, gardening, telling stories. His curiosity was insatiable. He never stopped studying. But more than anything, he loved to observe, to watch, to notice. Taking beautiful pictures was, I think, his way of memorializing the wonderful things he saw, that so many of us missed.

- He cooked all the meals.

• He did all the dishes. He could teach a resident the most intricate surgical techniques, but it was folly to think anyone in his family could learn the proper Korean Army way of doing dishes. “It’s OK. Just let me handle them.”

• He did the household chores. Pro tip: if you scrub the walls while taking a shower, you clean the bathroom, and get exercise, all at the same time. How beautiful is life?

Every morning, he did Lori’s hair.

When she found a dress that she liked, he filled her closet with every color and design of it. He was utterly, madly in love with her.

When Lori passed away, his heart was broken.

ENERGY AND DRIVE

Modern psychology tells us the path to a healthy life is clear: get plenty of sleep, maintain work-life balance, prioritize self-care, and make time to relax and recharge.

Chan-Kook never got that memo.

ORIGINS

When the communists took power and the Rhas’ name finally appeared on a list for wealth redistribution, his father’s loyal workers didn’t just warn them they



김경태(55) 선생을 추모하면서

신광섭 박사

김경태 선생께서 지난 가을 2024년 10월 1일, 94세의 연세로 작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의 가족 중에서 최장수를 하신 것인데 사실 김경태 선생은 늘 건강하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생을 의연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저는 김경태 선생의 외조카이며 펜실베이니아에서 내과와 응급의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대 졸업 동문은 아니지만 서울의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김경태 선생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돋고자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김경태 선생은 1930년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고 보니 온 세상이 일제의 치하에 있었고, 그로 인해 일본식 이름이 지어졌으며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일본 말만을 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6남매를 두었던 부모님(저의 외조부모님)은 자식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남다르셨고 해방 전 큰 아이들셋을 서울에 보내 교육시키셨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 드디어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았으나 북한은 소련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고, 남한은 미국의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38선이 그어졌고, 누구도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해져? 부모도 친지도 서로 만나기 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김경태 선생의 형제자매는 서울에서 중, 고교를 다녔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되지 못하여, 친척 집 문간방을 전전하며, 자력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가 김경태 선생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세 남매는 학업을 계을리 하지 않아 김경태 선생은 서울의대에 진학 할 수가 있었고, 학창 시절 특히 라틴어와 독일어에 특출한 재능을 보이시며 고토의 시를 독일어로 암송하여 당시 학생과장인 해부학 전공의 나세진 교수님을 감동시키신 적도 있다고 하네요.

수년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김경태 선생은 부산으로 피난을 가기 위해 열차의 지붕에 올라 여러 날에 걸쳐 생명을 건 이동을 했습니다. 헤어졌던 부모님과 동생들도 1.4 후퇴 때 남하하여 기적적으로 가족 상봉이 가능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에게 납치당해 학도병으로 끌려가신 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 젊은이들과 함께 북으로 행진하던 중 미군 전투기의 사격으로 논두렁으로 피신하라는 명령에 따라 논두렁과 숲에 숨었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시고 숨어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두 번 모두 말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당시에 만연했던 폐결핵에 심하게 걸려 사경을 헤매기도 하셨

습니다.

대학 졸업 후 흥창의 교수님의 소아과 교실에 근무하시다가 서울 마포구에 개인 병원을 개원하셨습니다. 이후 김경태 선생은 생리학 교실 남기용 교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과 가까운 거리였던 그의 병원은 저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겼습니다. 외삼촌께서는 누나(저의 어머니)와 매부(서울의대 학장을 지낸 생리학 교실 신동훈 교수, 45)의 집에 자주 찾아와 식사도 하고 어린 조카들과 놀아 주셨으며 저는 외삼촌과 노는 일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외삼촌은 저에게 부모님과 같다기보다는 마치 큰 형님 같았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엄격하게만 대하시지 않고 격의 없이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외삼촌께서 먼저 미국에 오시고 저는 한국서 대학 졸업 후에나 다시 외삼촌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때도 외삼촌께서 저를 대하시는 모습은 그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미국에 온 제가 온갖 시험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제 가정을 이루기까지 외삼촌은 늘 제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직계 가족이 미국에 없는 저는 외삼촌과 한동네에서 살고 싶었으나 그렇게는 되지 않았고, 두 시간 이내의 거리에 살 수 있어 자주 찾아뵙곤 했습니다.

김경태 선생께서는 당시로선 늦은 나이인 30대 중반에 지금의 부인, 제 외숙모이신 이대병원 산부인과의 김경자 선생과 결혼하셨습니다. 그 후 최근까지도 두 분은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행은 물론, 가까운 곳에 외출하실 때도 늘 함께 하시고 직장도 역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당시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서 서울의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미네소타 대학과 병원에서 연수할 기회도 있었고 ECFMG 시험을 통한 미국 진출이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늦은 나이였지만 김경태 선생은 젊은 후배들과 함께 ECFMG 시험을 공부한 탓에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김경태 선생보다도 먼저 김선생의 사촌 형님이 세브란스 출신 김동성 선생과 사촌 동연배인 박영호(57) 선생께서 미국에 와 있었고, 김경태 선생은 박영호 선생이 계시던 뉴저지의 병원에서 인턴과 정신과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여동생과 부군(한양대학 의과대학장과 병원장을 지내신 예방의학 고응린 교수, 57) 가족이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그곳에 오셨으나 김경태 선생은 박봉에 눈코 뜰 새 없는 인턴 생활로 멀리서 온 여동생을 만나러 갈 생각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요.

이후 김경태 선생은 필라델피아 외과으로 이사 오시면서 근처의 스테이트 병원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외삼촌 부부께서도 저의 외조부모님처럼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크셔서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자니 원래의 수입만으로는 어림도 없어 밤에는 근처의 여러 병원에서 당직의를 오래 하셨고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외숙모님까지도 뒤늦게 ECFMG를 통해 미국 의사로 직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들도 부모님의 뜻을 따라주어 정백, 정탁, 리라는 후에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에 진학하여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늘 부모님을 보살폈습니다.

50대 중반에 예고도 없이 massive heart attack(myocardial infarction)이 찾아와 죽을 뻔한 고비를 다시 한번 넘기셨습니다. 이때 많은 동료들이 찾아와 위로해 주었는데 외삼촌께서는 그분들 보다 더 오래, 그리고 심장 주치의였던 정구영 박사보다도 더 오래 사셨습니다. 그 후 최근까지 외삼촌의 심장 주치의는 cardiologist 사위였습니다. 그 후에도 심장 수술을 받으신 후 coronary artery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오기도 했고, carotid artery endarterectomy를 하면서 stroke이 오기도 했고, 이층 계단에서 낙상하여, 한쪽의 모든 갈비뼈와 두개골이 골절되며 뇌출혈이 있어 회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G I bleeding이 왔을 때 그것을 지혈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서 많은 양의 수혈을 받은 후 겨우 응급처치를 하여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심장 stents 시술 후 드시던 Plavix 때문인지 또 한 번의 뇌출혈이 발생, 뇌 수술을 하여 위기를 넘기신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제가 펜실베이니아에 이사 온 지난 20여 년간 외삼촌이 위급하시다는 소식에 가슴 졸이며 외삼촌이 입원하신 병원에 달려간 것만 해도 다섯 번이나 됩니다. 그때마다 외삼촌께서는 툴툴 털고 일어나시고 회복하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것 말고도 당남 제거 수술, 피부암 치료, 코비드와 급성 폐렴 등등은 외삼촌에겐 작은 일에 속해 일일이 생각도 안 날 정도입니다. 외삼촌의 말씀으로 당신께선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는 '오뚝이 인생'이라 하셨고, 주위에선 외삼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사조'라고도 했고 'He has nine lives'라고도 했지요.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김경태 선생의 조카들, 자녀들,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손자들까지 저희 집안에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김경태 선생의 딸 형은 1960년대의 인기 만화가였던 김경언 화백이셨습니다. 또한 매부이신 신동훈 교수의 동생들이며 저의 작은 아버지들이신 신동현 화백과 신동우 화백도 역시 한국 최

초의 만화영화 흥길동전 등을 제작하신 당대의 저명한 만화가들이었습니다. 김경태 선생은 이들과 사돈 관계이면서도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며 폭넓은 인간관계를 보여 주었습니다.

외삼촌은 1968년 도미하신 후 고국 방문을 몇 차례 하시며 한국의 변화를 접하시곤 했습니다. 가실 때마다 고국의 발전 상에 놀라셨고 학교의 옛 동기생들과 만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지요. 그러나 연세가 드시며 장시간 비행이 힘들어지자, 인터넷과 이메일로 고국 소식을 접하고 이메일로 한국의 옛 친구, 친지들과 교류를 이어가셨습니다.

연세가 드시니 주위의 사람들이 먼저 들을 가시고 한국과 미국에서 교류하시던 이야기 상대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외삼촌께서는 가까운 친구들의 장례에서 조사를 쓰신 것도 여러 번이랍니다. 당신에 관한 조사는 손수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여 지금 제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군요. 그 후 외삼촌에겐 독서만이 유일한 소일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과 일본 문학 서적들이 주인翁 읽은 책장에 가득 꽂혀 있습니다. 일부러 뉴욕까지 가셔서 책방들을 살샅이 뿐이보시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세상사와 세계사에 관심이 많아 그에 관한 의견을 수년에 걸쳐 써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메일 하시고 집필하셨습니다. 후손들이 그것들을 수집, 정리하여 세상에 알릴 계획입니다. 코비드 유행 직전인 90세까지는 매일 아침 손수 운전하여 부인과 함께 동네 YMCA에 가셔서 운동하시고 거기에서 사귄 친구들과도 어울리며 소일하셨습니다. 당신께서 꾸준한 운동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뵈었던 9월 중순의 외삼촌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기억력 저하와 같은 노화의 징후가 있었으나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도 당신께선 100살 까지 사시는 것은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일주일 후 94세 생일에 자식들이 찾아와 함께 외식하고 생일 케이크를 한 번에 불어서 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 후 갑자기 의식불명에 호흡 장애가 찾아와 병원으로 모셔졌고 결국 부인과 자식들의 보살핌 속에, 다섯 명의 손주들의 사랑을 받으며 마치 주무시듯 평안하신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한국의 두 여동생들과 조카들도 멀리서 아쉬움을 달랠고 있습니다.

김경태 선생은 자신의 업적을 남에게 자랑하는 것을 삼가시고, 소박하고 겸손한 삶을 추구하셨습니다. 그의 뜻에 따라 가족들만이 모여 간소한 장례를 치렀고, 많은 이들이 그의 따듯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외삼촌, 김경태 선생의 삶은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서 외삼촌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외조카, 신광섭 올림

*저자 신광섭 박사는 우리 모교의 신동훈 전학장님의 아드님이고 서울의대 대학원을 나온 준회원임.



This is where I should share a humanizing story, something to make Chan-Kook more relatable, more accessible. But I don't have much to offer in that way. The guy did not miss.

Here's the best I can come up with. As a parent, I've recently learned that on rare occasions, when we think we're helping our kids we're actually traumatizing them.

Chan-Kook loved to quiz the girls on math during car rides. Great fun for Seung-Yeon and Ji-Yeon, the scientists. For Joanne and Susan, the artists, not so much.

So, here's a Chan-Kook Rha car ride math question for all of you. If a man lives for 86 years, but only needs three hours of sleep each night instead of the usual eight, how many additional years of life does he experience?

I'm waiting.

The answer is 27 years. Chan-Kook Rha lived for 86 glorious years, but he was alive for 113.

And it wasn't nearly enough. If anyone deserved more time, it was him. But what a magnificent 113 years they were.

글: 고 라찬국(64)의 사위 Damon Tassone 2024년 11월 9일

risked their own lives to save the family.

LEGACY

And his legacy of kindness and generosity lives on, today, through his daughters. The way they cared for him in the four years since Lori passed away was nothing short of miraculous.

One or more of them accompanied him to every doctor's visit, check-up, and procedure. They never missed a single telehealth appointment. Nearly every weekend, one or multiple daughters would be there with him in Stamford. They made hundreds of trips with him to Spring Grove Cemetery to visit their mom. And almost every night, they'd call him -often talking for hours.

They did all this while managing demanding careers, raising their own children, being there for their husbands, friends, and communities.

They did it because they had an overwhelming love and respect for their father. They did it because they loved spending time with him. And they did it because, like their father, they only know one way to be, giving everything to those they love. Those giant, giant Rha hearts.

Susan texted me on Thursday: "I'm pretty sure my dad is the best person I have known in my life. He was not perfect, but probably the closest to it."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고 한국 국내 정정이 불안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게 지나고 있는 중에 청천벽력같이 김영애 여사의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되자 잠시 멍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항상 명랑하고 긍정적이며 활기찬 모습만 생각나는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나는 순간 심근 경색으로 돌아가신 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다. 나중에 들으니 암 진단받고 일 년 반여를 항암 투쟁을 하였다라고 하였다. 별로 효과도 없는 키모 테라피 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몇 달을 살았으면 좋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나와 김영애 여사와의 인연은 내가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총무로 내정되었던 69년 졸업, 김홍서 동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급히 총무 대행을 구하려 하니 마땅한 사람이 없어 평소 동창회 일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던 김영애 여사가 생각나, 본인이 비록 의대 동창은 아니나 71년 졸업인 부군 김성환 선생이 먼저 회장을 역임한 바도 있고 평소에 부부가 다 동창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또 애쓰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총무로 일하실 것을 간청하였다니 흔쾌히 허락해 주어 회장직을 안심하고 별 탈 없이 끝내게 될 수 있었다.

참으로 나의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라.

같이 일하고 보니 김영애 여사는 내가 처음에 생각하였던 대로 긍정적이고 명랑한 성격에 추진력이 보통이 아닌 분이었다. 덕분에 동창회에 관련된 대소사가 다 해결되었고 약간의 난관이 있으면 나와 둘이 잘 상의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되곤 하였다.

김 여사는 원래 간호사였지만, 그외 한국 수필가 협회에 정식으로 가입된 수필가요, LA 지역 한인사회에 명망 있는 인



Old North Church, Los Angeles, CA
2025년 1월 11일(토) 오후 2시 30분



사였고, 한인 사회의 중추적인 인물이었다. 한인 타운에 있는 PICO 도서관 후원회 일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김영애 여사는 1951년 4월 서울에서 출생하여 이화 여중고를 거쳐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2년여를 서울대학 병원에서 일하였고 그 후 도미하여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Mt.Sinai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평생의 반려자인 부군 김성환 선생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두 분은 김성환 선생의 fellowship training 때문에 LA로 이주하였고 이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김영애 여사는 최고의 내조자, 어머니, 수필가, 한인회 임원, 서울의대 동창회 총무로 5종 역할을 훌륭하고 충실히 수행한 wonder woman 이었다!

김영애, 김성환 부부는 슬하에 2녀 1남을 두었다. 이제 김성환 선생은 사랑하는 부인을, 자녀들은 자애로운 어머니를 잊었다. 그러나 김영애 여사는 그들의 가슴 속에, 머리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들의 머릿속에 영원한 서울대 의대 동창회 최고의 총무로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아 아, 누군가를 떠나 보낸다는 것은 항상 우리들 가슴을 아릿하게 만든다.

특히 김영애 여사같이 큰 족적을 남긴 경우에는 그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아, 아깝다.

인재를 잃는다는 것은 언제나 아깝다. 김영애 여사여, 편히 잠드소서.

이승에 남은 우리들은 항상 그대의 빈 자리를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이승 LA 한 귀퉁이에서

이 건 일 (68) 드림

전45대 북미주서울의대 동창회장

無住心 권(김)영애

김영애 씨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녀는 김성환(71) 형의 영부인이었지만 사석에서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불러주었지요. 그런데 나보다 5년이나 늦게 태어나서 저보다 먼저 가다니 말이 됩니까?

사실 권영애 님의 사촌 오라버니는 권평일(65) 선배님이시고 내게는 오히려 '큰 누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항상 저를 배려해 주고 뭐든지 베풀어 주려고 했지요. 40여 년 전 제가 로스엔젤레스로 이사 와서 아파트 생활을 할 때, 설날 그리피스 파크 근처에 있는 전망 좋은 저택으로 가족을 초대해 줘서 우리 애들이 색동 저고리 입고 그 집에 가서 설 뷔를 한지가 엊그제 같네요.

언젠가 같이 학회에 갔다 오다가 시간에 헛겨 2시까지 점심을 못 먹었는데 허기진 내 모습을 보고 케네디 공항에서 \$20짜리 햄버거를 사줘서 평생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는 햄버거를 먹어 봤지요. 저희 대학 동기는 미세스 김 덕분으로 지난 10년간 단체여행도 많이 했고 3개월



마다 20여 명이 꼬박꼬박 만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식사 때 맥주나 포도주로 입가심만 하지만 김영애 씨는 내가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깨뚫어 보고 슬며시 소주 한 병을 따로 시키곤 했지요. 이렇게 저를 쟁겨주던 김영애 님이 가시고 나니 그 누가 몰래 소주병을 갖다 줄련지, 그것이 아쉬워서 그 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애 씨는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나왔지만 동창회 활동은 서울의대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비 졸업생으로 전무후무하게 북미주 동창회와 남가주 동창회의 총무직을 수년간 수행해 왔습니다. 동창회의 마당발로 웃은일을 도맡아 했고 e-mail이나 카톡 방에 반드시 응답을 하고 맞장구까지 쳐 주었기 때문에 한국의 동창회에서까지 유명해졌지요.

그녀는 또한 재미 문단의 중견 수필가였습니다.

[사각지대의 앵무새]를 비롯해 다섯 권의 수필집을 출판했으며 <무원 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필집 [몸 연꽃 피우기]에서 보듯이 김영애 씨가 문학에 두각을 나타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작품세계는 중생의 목마름을 달래주는 대자대비한 적선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이 한 몸 다 바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가셨습니다.

김영애 보살님의 법명 무주심(無住心)은 미련-욕심이 없는 마음가짐이란 뜻이지요. 이제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가족 및 친지들에게 모든 정성을 쏟아붓고 흘가분한 마음으로 저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넓고도 깊이 있는 울림만 남기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평생 음덕을 쌓아 올린 Bodhisattva 김영애 님, 부디 극락 정토에 가셔서 아미타불이 되시옵소서!

2025년 1월 13일 남가주에서,
이 원 택 (71) 현정

추 모 시

나 두 섭 (73, 남가주)

화려하던 붉은 장미도 어느덧 시들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이같이 지는 것을 어찌하리오

마음에 새겨진 아쉬움 어쩔 수는 없지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떠나감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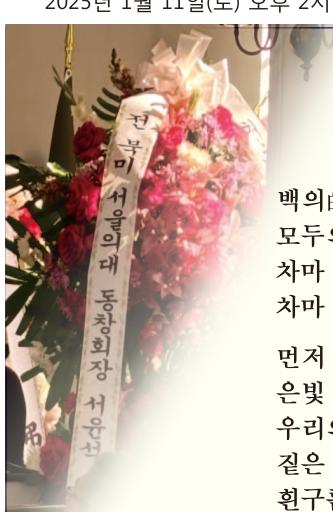
그리움은 작은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져
따뜻한 추억으로 오래오래 남겨져 있겠지요

어차피 헤어져야 하는 것은 세상 순리이고
이별은 비에 젖은 참새같이 애련한 슬픔을 남기지만
세월이라는 바람에 멀리 또 멀리 실려 보내렵니다

보석 같은 남편 자식들 남겨두고
꿈결같이 아름답던 시 수필도 옆에 두고
그렇게 아끼던 서울의대 동창 모임도 작별하고

이제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곳에서
여기서 늘 경험하던 좋은 안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떠나가시다니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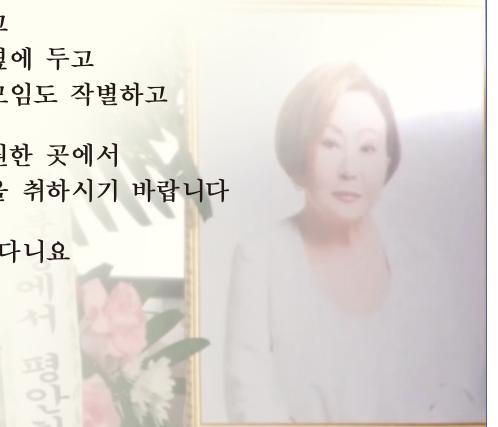
서 운 석 (68. 버지니아)

백의白衣의 천사天使
모두의 가슴에 붉은 인장印章 찍어놓고
차마 떨치지,
차마 떨치지 못하다가 떠나갔어요

먼저 간다는 눈짓도 없이
은빛 티-스푼 하나로
우리의 커피잔에 슈가를 넣어주고
짙은 향기香氣 올라타고
흰구름 저편 꿈속의 나라로 날아갔어요

이화梨花의 영광榮光
나이팅게일 옷을 다려입고
빛나는 수필隨筆을 시어詩語로 남긴
섬세纖細한 손 흔들면서
이생에서 만난 앵무새도 고향 나라로 날려보내고
꽃 마당 중생들의 기원祈願속에서 비상飛上하였어요

김성환 아우님의 든든한 어깨이자 자랑스러운 아내
아이들의 빼어난 어머니인
권(김)영애 여사님
아름다운 인연이 된
서울의대 깃발을 품에 안고
고운 음성으로 우리와 같이 부르던 교가
더욱 더욱 용성하는 서울대학교



10
10
문답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돈은 얼마를 가지고 오셨나요?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가장 결혼생활 중에서 행복하셨을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가 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임상을 하셨나요 전공은? 연구를 하셨나요?
4.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순채(66, NJ) 동문



1. 1966년 졸업 하던 해 Kim's Plan에 응모해서 국방부 시험을 보았는데 운이 좋아서 1차 선발 33명에 합격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외환사정이 어려워서 50달러만 허용되었는데 암시장에서 100달러 구해서 150달러 가지고 나와서 동경 공항에서 Minolta 카메라 120달러 주고 샀더니 주머니에 30달러 남았었습니다.

그때는 직행 비행기가 없어 서울-동경-호놀루루-샌프란시스코-필라델피아까지 이틀이 걸려서 왔습니다.

2. 우리 집사람과는 서울의대-이대야대 그룹 미팅에서 만났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 집사람이 내 파트너였는데 (그것도 파티 직전 화장실에서 자기 친한 친구와 티켓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서 신문지와 페이퍼 클립으로 은흔식 때 입는 의상을 만드는 게임을 했는데 우리 그룹에서는 우리 두 사람이 모델로 뽑혀서 우리는 결혼 전에 은흔식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제는 금흔식도 지났고 두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복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어렸을 때부터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공군사관학교를 갈까 했으나 아버님께서 내 팔자는 의사가 되는 팔자라고 해서 의대 지망을 하게 되었고 나 자신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외과 중 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 경험으로는 “환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한국에 살고 있던 동생 3명이 암, 교통사고, 약물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2020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COVID가 절정이어서 최소 7일간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어머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을 때는 치료후에 만나는 환자들이 수술 후에 경과가 좋아 후유증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고마워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혜택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공헌을 하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나는 국민학교는 조그만 시골에서 학교 수업은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학교 소유의 눈에 나가서 농사일을 하고 학교 숙제로는 풀을 잘라 토비 한 단씩 만들어서 다음날 학교로 가지고 갔고 중고등학교는 소도시에서, 대학은 서울에서, 졸업 후 전문의 공부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학창 시절은 의예과 2년 동안 문리대 (그때 의예과는 문리대 소속) 산악반에 들어가 방학 때면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등 유명한 산들을 찾아다니느라 바쁘게 지냈고, 4.19가 지나고 대학생들이 왕 노릇을 할 때 산악반 친구들과 함께 선거 계몽 봉사단원으로 올릉

도로 갔습니다. 그때는 GPS도 없었기 때문에 나침판 하나밖에 없는 통통배를 타고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6시간 이상 걸려서 갔습니다. 배는 짐을 많이 실어서 큰 파도가 치면 배 위로 넘쳐갔고 포항에서 오후 늦게 떠나 새벽해 뜰 무렵 수평선 위로 보이는 섬을 찾아가는 항해였는데 그날은 안개가 끼어서 등대불을 찾느라 2시간을 더 헤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잊지 못할 추억이지만 옛날 옛적 태곳적 얘기같습니다.

의대 4학년 때는 동기들과 전남 완도 무의촌 의료봉사를 마치고 제주도 한라산 등반을 갔는데 밤이면 화투 노름을 하느라 잠도 잘 못 잤고 산악등반에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 애를 먹었는데 내가 먼저 정상에 올라가서 기다릴 테니 다른 친구들이 올라오면 같이 서쪽으로 오백나한도 구경하면서 중문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태풍이 지나 가면서 우리 동기들은 바람과 안갯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그룹과 함께 남쪽 서귀포로 내려갔고 나는 혼자 정상에서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서쪽 중문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내가 중문에서 서귀포에 도착하기 전 나와 헤어진 친구들이 서귀포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고 다음날 조선일보 사회면에 특호활자로 “서울 의대생 한라산 안갯속에 실종”이라고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그때 실제로 서울에서 온 경신고등학생 두 명이 협곡에서 금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후 제주로 돌아와서야 사실이 밝혀지고 웃고 지나갈 예피소드로 끝났지만 그때 학장으로 계시던 나세진 교수님과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우리는 제주에서 부산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또 태풍이 와서 자연되는 바람에 돈도 떨어지고 갈 곳도 없었는데 그때 마침 특별강좌로 내려오신 한심석 교수님께서 고생 많이 했다고 금일봉을 주셨고 그때 도립 병원에 레지던트로 과연 나와 있던 선배들의 도움으로 빈병실을 빌려서 태풍해제 될 때까지 며칠 지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 일생에서 다른 사람이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벼락을 맞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1985년 강상진(59) 선배님이 13대 동창회장이셨고 내가 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 썸머 컨벤션을 뉴욕주 Catskill에 있는 Grossinger Resort에서 했습니다. 7월 3일 동기들과 같이 골프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나는 큰 나무 아래에 있는 우산처럼 생긴 작은 나무 아래에 서있었는데 벼락을 맞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가 차차 다시 깨어났습니다. 오른쪽 귀 뒤의 머리카락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되었고 뺨간 줄이 오른쪽 목, 어깨 복부로 내려와서 진바지의 놋쇠 지퍼가 녹아 붙었고 양쪽 발목 안쪽 나일론 양말이 녹아 큰 구멍이 나았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 지나고 왔지만 운이 좋아 별다른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Electric Shock Therapy를 받았으니 앞으로 우울증(Depression) 걱정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6.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의사가 될 것 같습니다.

5. 의대 학창 시절이나,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국민(초등)학교 시절에 숨겨놓았던 나누고 싶은 좋은 경험담이나 숨은 이야기.
6. 다시 태어나서도 의사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선택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 법관, 정치가, 사업가, 예술, 문학가.
7. 자녀를 양육하는데 후배들에게 참고가 될 사항이나 추천하고 싶으신 이야기? 필요하면 물론 자랑이 되어도 좋습니다.
8. 현재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운동?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현 의료시스템의 장 단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9. 현재 무슨 취미생활을 하시나요? 혹시 종교활동을 하시나요?
10. 동창회와 시계탑 편집위원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7. 많은 동문들이 더 훌륭하게 자녀 양육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니 특별히 참고될 말씀은 없고 “항상 칭찬해 주어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애들이 자랄 때 왜 좀 더 칭찬해 주지 못했나 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8. 미국의 현 의료시스템은 약 값이 너무 비싸고 환자를 위하기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많이 내야 하는 주식회사가 의료보험을 취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유럽처럼 국가가 보험을 관리하는 National Health Insurance나 Non-profit Organization이 보험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바쁘게 사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동네 친구들과 서너 번 골프 치고 시간 있는 대로 gardening을 즐기고 겨울에는 스키 타는 것이었는데 요즈음은 같이 갈 사람이 없어 더 어려워집니다.

9. 취미생활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1973년 레지던트 마치고 NJ Rutgers University에 조교수로 취직하고 나서 집에서 멀지 않은 비행장에 있는 비행학교에 들어가 내가 오랫동안 원했던 Pilot License를 받았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Cessna 172를 몰고 NY, MD 등 친구들 방문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 license가 expire 되었지만 다시 renew 해볼까 하는 생각이 가끔 납니다.

골프 경험으로는 2017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등반 전 경치 좋은 킬리만자로 Country Club에서 캐디와 단둘이 라운드 한 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고 스키 경험으로는 1991년 3월 CMH (Canadian Mountain Holiday)가 운영하는 Heli-Skiing을 1주일 해본 것이었습니다.

다. 우리는 British Columbia 북쪽에 있는 Cariboo에서 스키를 타고 있었는데 같은 주에 남쪽 Bugaboo에서 Heli-Skiing을 하던 다른 CMH 그룹 12명이 Class 4-Avalanche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중 3명은 그 전주에 Pre-HeliSkiing Program에서 나와 같이 스キー 탔던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스키 경험의 하이라이트는 2005년 Park City UT에서 열렸던 미 전국 아마추어 Ski Racing Championship(NASTAR)에서 우승(60-65 age group) 했던 추억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16년 6월 해보았던 Sky Diving은 그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Bucket List 중의 하나였고 앞으로는 수채화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10. 이제는 동창 회원들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후배들이 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물려받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귀한 시간을 허생하며 봉사정신으로 훌륭한 동문 회지를 계속 유지하느라 노력하시는 편집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시계탑 1월호 편집회 초록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동부 시간)에 1월호 편집회가 Zoom으로 열렸다. 참석한 사람은 서윤석, 서량, 서인석, 서귀숙, 박은경, 그리고 Jamie 김 사무장과 황창근 사장이다.

개회에 이어서 지난달에 작고한 전 동창회 총무 김영애 여사를 비롯하여 지난 3개월간에 작고한 여러분에 대한 묵념을 올렸다. 그리고 아직도 진화중인 남부 CA의 Wild Fire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 동문들이 살고 있는 곳에도 큰 피해가 없도록 기원했다.

40여년간 우리 편집회와 인연을 갖은(서인석 위원의 증언) 황사장이 근래에 발행되어 우송되어 올 예정인 50주년 기념 문집-화집에 대하여 보고했다. 서울에서 책이 인쇄되면 서울동창회에 일부 전해지고 3월 말 전에는 미국에 도착할 것이다. 출판 기념회는 학회 때에 치루어질 것이다. 이어서 준비된 원고의 리스트를 의논했다. 서귀숙 위원이 많은 원고의 교정을 했다.

이번 4월의 학회에 대한 준비사항과 그 광고 내용을 의논했다. 원고 중에 고라친국 추모사가 영문인데 길어서 편집장이 정리하여 줄이기로 했다. 또한 박은경 위원의 의견으로 젊은 동문들의 투고를 장려하는 소개문을 기존의 원고 안내문에 더 첨가하여 1월호에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Directory-2024에서 수정사항은 약속대로 12월 31일까지로 국한하여 시계탑 1월호에 올린다. 오늘의 기념촬영을 전처럼 박은경 위원이 했다. 이어서 각자의 소개시간이 있었다. 현재 생활에 대하여 경청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었다. 특히 정신과 의사이자 저명한 시인인 서량 박사는 이번에 1969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56년간 이어온 환자 진료를 마무리하게 되어서 축하를 받았다.

다음 호의 편집회는 4월 10일에 학회가 있음으로 4월 19일 토요일로 예정한다. 모두들 건강하게 있다가 4월 학회에서 만나기를 약속하고 헤어졌다.

- 글: 편집장



박종철 동문 (99 졸)

혈액종양 내과, 매사추세츠



1.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저는 사실 거대한 포부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가지 이유들이 모여 미국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인턴이었던 2000년은 의약분업 사태로 의사들이 처음으로 파업을 비롯한 대규모 집단행동을 했던 해입니다. (편집자주: 의약분업이란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는 약 조제 및 판매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리한 제도이다. 당시 정부가 출속으로 강행하여 의료 대란이 발생하였다.) 그때만 해도 한국 의료를 벗어나겠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의학연구를 미국에서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지원했던 과의 레지던트에 낙방하고 군의관으로 가게 되면서 제 자신을 쇄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솟았습니다. 그래서 군의관 시절에 USMLE를 치르고 미국 진출을 준비했죠. 그 당시 꽤 많은 수의 의대 동기들이 미국의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2. 그 동안의 수련 과정은 어떠하였나요?

저는 바로 수련을 하지 않고 여러 해방황을 했습니다. 미국에 온 후 먼저 암 연구실에서 2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제약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비임상 생활 5년만에 내과 레지던트를 시작했죠. 일단 졸업 후 8년이란 임상 공백이 있어서 레지던시 때마다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미국행을 생각하는 후배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고민이 수련 전에 미국에서 연구 경력을 쌓거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바로 레지던트를 하면서 연구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나은 선택인지에 관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답이 있다기보다 개인의 목표에 따라 결정해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구자의 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면 일단 레지던시 수련을 하면서 연구 기회를 찾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레지던시에 들어온 후 수련 첫

6개월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미국 의사들처럼 서브인턴(sub-internship) 경험도 없었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약들도 한국에서 배웠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로서 가장 중요한 환자 보고(case presentation)하는 방식을 몰라, 교수님이 제 환자 케이스를 직접 발표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기억도 있네요. 미국 의사들이 당연히 하는 경험이 없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 차이가 나더군요. 하지만 레지던트 2년차 때부터는 조금씩 편해졌고, 수련 중 둘째 딸도 가졌습니다. 저는 내과 레지던트를 시작할 때부터 혈액종양학 전임의(fellowship)를 할 준비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전임의를 하면서는 세부 전공을 정하는데 고민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어떤 세부 전공을 정하거나 다 비슷한 것 같고, 근본적인 연구나 임상 활동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멘토(mentor)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기암을 전공하겠다고 결심했다가 비뇨기암으로 전공을 바꾼 것도 멘토의 영향이 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교원 임용이 될 때에는 두 경부암 및 조기 임상시험으로 전문 분야를 바꿨습니다. 이는 마침 제가 관심이 있는 임상시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자리였고, 아이들 교육을 생각해서 지역도 마음에 들어서 한 결정이었습니다.

3. 요즘 병원에서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가요?

어느덧 임용된 지 9년차에 들어가네요. 저는 현재 환자 진료에 50% 정도의 시간을 쓰고 나머지 50%는 연구, 교육, 각종 위원회 활동, 그리고 다른 행정 잡무에 할애합니다. 대학에 계신 다른 분들보다 환자 진료의 비중이 조금 많은 편인데, 제 주 연구가 임상 연구나 임상 시험이다 보니 환자 보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외래가 있는 날은 오전 8시부터 환자를 보고, 그날은 의무 기록 정리와 여러가지 환자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외래가 없는 날에는 주로 임상 연구팀, 진료팀, 외부 협력자들과 회의 시간을 갖고 연구 관련 활동을 합니다. 저는 실험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비나 인사 관리에 대한 고민은 없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크게 지치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일은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4. 하시는 연구 소개해주세요.

저는 미국 생활을 암연구실에서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수련을 거치면서 다른 전공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암연구의 매력은 다양한 약물 개발 기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요 관심은 임상 연구입니다. 현재 두경부암 센터, 신약 임상 센터, 그리고 면역 세포치료 센터에 소속되어 있고, 다양한 신약 임상 시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first-in-class나 first-in-human 등의 임상 시험을 주로 하려고 하고, 타 병원이나 제약 회사들과 협력하여 약물 반응 예측이나 환자 예후 분석 등 임상에 가까운 중개 연구(translational research)도 합니다. 미래에는 한국에 있는 병원이나 회사와 공동 연구를 하고 싶고요. 다기관 환자 분석이나 한국에서 개발중인 신약의 미국 진출을 돋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5. 혈액종양내과 의사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너무나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다른 전공에 비해 환자들의 질병이 심각하고 죽음을 항상 접해야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만큼 환자와의 유대 관계가 강합니다. 환자가 저를 질병 치료 및 관리의 동반자로서 믿을 수 있게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른 과에 비해 소위 '워라밸(work-life balance)'은 어렵습니다. 또한 종양학은 새로운 약물 개발과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분야 중에 하나이고, 신약 개발, 중개 연구, 기초 연구 등 어떤 측면이든 연구에 관심있는 분께는 더욱 매력적인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6. 보스턴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춥고, 물가가 비싸고, 맛있는 한국 음식점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뭔가 고풍스럽고, 학구적이고, 차분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의학 분야에 있는 분이면 보스턴의 의료 산학 생태계는 최고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MGH)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병원 중에 하나이자 하버드 의대 교육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다른 하버드 의대 부속 병원이 위치한 Longwood 캠퍼스와는 조금 떨어진 West End라는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하버드 교육 병원인 Brigham & Women's Hospital (BWH)과 합쳐져서 이제는 'Massachusetts General Brigham(MGB)'이라고 새 이름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보스턴 지역 병원이나 바이오 제약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져서 더 좋습니다. 미국 바이오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병원에서 다리만 건너면 나오는 캠브리지 켄달 스퀘어를 중심으로 많은 제약회사와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이 있습니다. 관심 분야가 비슷하다 보니 서로 교류하는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여러 행사를 통해 정부, 산업, 그리고 학계가 서로 만나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최근 '뉴잉글랜드 의사 연구회'가 생겨서 보스턴 지역 한인 의사들과의 교류폭도 더 넓어졌고, 이쪽으로 연수를 오시는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7. 주말에는 어떻게 보내세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느끼는 장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미국 삶 자체가 가족 중심이

다보니 주말이나 저녁 시간은 거의 항상 가족들과 보냅니다. 미국은 일 이외의 모임이나 술 마시는 회식을 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 사이에 개인적인 만남은 있지만, 반드시 혹은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단체 모임은 거의 없습니다. 저녁 교육 면에서는, 여기도 교육열이 높고 경쟁도 세지만, 한국에 비하면 아이들이 조금은 더 자유롭고 더 여유 있게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굳이 명문대에 나오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점은, 아이들이 크고 나면 1세대 이민자인 부모와 삶의 경험도 가치관도 달라서 인자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8. 학창 시절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저는 사실 의대에 잘 적응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보다는 다른 장소나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더 편했고, 거기에서 보람과 위로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많이 성숙하지 못했고, 뚜렷한 목표나 가치관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아시아 의대생 연합인 AMSA(Asian Medical Students' Association) 활동이었습니다. 국내외의 다른 의대생들과 교류하는 것이 너무나 새로웠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었을텐데 싶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학생 때는 한 순간 한 순간이 다 소중한 경험이 된다는 것을 다 지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9. 미국 생활에서 힘들었던 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미국에 와서 레지던트 시작하기 전 까지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마음이 가장 힘들었고, 미국에 오기로 한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들었던 시기입니다. 레지던트 시작 후에는 펠로우쉽 그리고 그 후의 직장 대한 불안감이 기대 및 희망과 공존하며 또 다른 의미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돌아 보면 그런 과정들을 나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요즘 즐거운 시간은 이제 곧 성인이 되어서 집을 떠날 날이 많이 남지 않은 딸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여행을 좋아해서 기회가 있으면 새로운 지역을 탐방하고 맛집 투어도 더 하고 싶습니다.

10. 새해 소망은 미국 의사 생활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환자 치료에서 항암 약물의 적절한 사용, 그리고 항암 치료의 결과 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 개발을 통해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생존을 연장하는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미국 의사 생활을 희망하는 후배님들께는,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니 바로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도전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의 향기에 감탄합니다.

시계탑 원고에 대한 안내 말씀

원고를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동창회원은 물론이지만 회원가족, 아직 회원이 아니더라도 연수나 선택실습 등으로 미국과 카나다 등 지역에 체류 중인 분들의 원고도 환영합니다.

원고의 내용은 지부소식, 수필, 의견서, 시(한, 영), 소설, 진료나 수련의 경험담, 사진작품, 그림작품, 유모어, 삽화, 이민생활 경험담, 자녀 교육 자랑 등등 동문들과 서로 나누고 싶으신 내용이면 됩니다. 다만 지나친 정치적 종교적 내용은 피해주십시오.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원고에는 성명과 졸업학년을 반드시 적어주세요.

*원고 내용과 관계되는 사진 혹은 그림과 저자의 사진

*원고는 아래의 Email로 혹은 유플로

유플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다음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oun Seok Seo, 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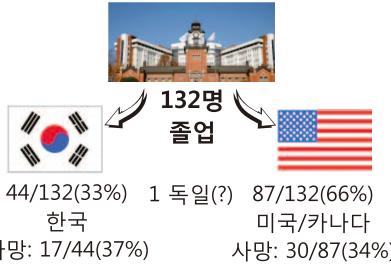
15727 Rothschild Court, Haymarket, VA 20169

Tel 419-234-4154

Email: younseokseo2004@gmail.com 혹은 snucmaa@yahoo.com

2024년은 우리 64년 동기가 의대를 졸업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로 축하연을 가지는 풍습 속에서 자란 우리가 의사로 태어난 지 60년이 되었으니 크게 자축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자축하는 동기 모임을 구상하였고 우리들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1964년에 132명이 졸업했고 1960년 졸업생부터 시작된 추세에 따라 대거 87명(66%)이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와 독일로 수련을 받으러 떠난 것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에서 2022년 발행된 동창 회원 명부와 2024년 북미주 동창회 Directory에 나와 있다. 졸업 후 한국에는 44동기만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그러나 최근에는 급격히 늘어나는 친구들의 타계로 미국에서는 34% 한국에서는 37%의 사망률을 보여주었다. 그래도 미국과 캐나다에 47명과 한국에는 27명의 동기들이 84-87세의 나이에도 건재하고 있음을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2024년 신년 초부터 동기들의 의견을 타진하며 행사를 추진했다.

서울의대 18회 1964년 졸업



노령 참가자들과 제한된 인원수 때문에 인지 미국 내 여행사와의 연결이 순탄치 않아 우리는 미주 여행사보다는 한국 동기 동창의 도움을 받아 한국 내 굴지(?) 여행사인 “하나 여행사”와 직접 연결을 시작하였다. 5월 초부터 행사와 여행 일정을 포함, 경비를 의논했고 마지막으로 60주년 행사 연례인 모교 발전 기금 모금을 시작했다. 참여하고 싶어 하는 동기들은 많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처음에 적극 참여하려던 동기들 중에도 새로운 건강 문제로 단념하는 사례도 있었다. 마침내 미국의 동기 12명(권정덕/홍선경, 김태환, 송원길, 신두식, 이종성, 이주영, 이철남, 한종하, 오수황, 방효준, 최준희)과 8명 배우자를 합하여 19명이 한국에서 열리는 기념식과 간략한 3박 4일 여행에 참가하기로 결정되었다. 모교 발전 기금 모금도 처음에는 막연하였으나 여러 동기들이 여행에 참여 못하면서도 성의껏(\$100-\$10,000) 호응해 주어 25명의 참여로 모금 시작 전의 염려와는 달리 다른 졸업 회기보다도 훨씬 많은 기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총액(\$129,300: 특기할 것은 여행에 참여 못하면서도 5만 달러를 도와준 동기의 Brain인 이홍표 군과 모금 소식을 듣고 성금을 보내온 고 흥준표 가족들께 특별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 모교 발전 기금 회사는 어느 기록이나 기념비에 새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교에 바치는 선물로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드릴 때의 서로가 느끼는 마음에 뿌듯한 기쁨 같은 것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지리라 생각한다. 참가자는 김용두, 오유섭, 유광현, 김원명, 김영기, 양운택, 권정덕, 김태환, 방효준, 이정은, 이정필, 이진웅, 이홍표, 강창만, 김원명, 송원길, 신두식, 오수황, 이종성, 임상진, 한태진, 최준희, 한종하, 홍선경, 고 흥준표이다.

드디어 2024년 10월 5일 토요일에 한국의 동기들이 준비한 졸업 60주년 자축 기념 회동을 프레스센터 정동의 서울회관에서 모교 서울의대의 현 학장님이신 김정은 교수를 모시고 가지게 되었다. 참석 할 수 있었던 동기들은 미국에서 12명(배우자 합쳐 19명)과 한국 동기 15명(배우자 합쳐 27명) 그리고 때마침 방한 중이던 고 이유찬 동문의 둘째 James 군과 미주 총동창회보 기자 이영주 님, 서울의

64년 동기 졸업 60주년 기념회를 마치고

홍선경, 권정덕(64, 대뉴욕) 부부



대 발전기금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동기들이 함께 모였던 것은 10년 전인 50주년 기념 때였기에 처음에는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조금씩 모임의 시간이 가면서 옛 모습을 알아보고 서로 놀라며 다시 반가워했다. 부인들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았으나 80세 중반의 노신사들은 흰머리 털, 얼굴의 주름, 변한 체형과 자세, 지팡이 사용과 난청 등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직은 두 발로 걸어서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만도 기쁘게 생각했다. 정해진 테이블에 섞여 앉아서 교가를 부를 때 잠시 목이 메었다. 모교의 발전상에 대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김정은 학장님께서는 서울대가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 육성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축사를 하셨다. 이어서 모교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어 미국 12만9천300달러, 한국 2천890만원(합계 15만8천600달러 상당)을 학장님께 전달하였고 서울대학교와 서울 의대에서는 한국 동기회장(한달선)과 미주 동기회장(권정덕)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만찬에서는 김태환 동문의 백두산(백살까지 두발로 산을 올라가자) 선창의 건배로 고급스럽게 차린 양식으로 회식을 즐겼다. 몇몇 동기들의 소감이 이어졌고 테너인 박성태 군의 ‘가고파’를 들었다. 젊은 시절 술이 들어가면 떠들썩 하던 파티의 흥분도 연륜의 완숙함으로 점잖아져서 많은 감회를 속으로 삼키는 기분이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간직한 채 단체 사진을 찍고 기념식을 마쳤다. 김정은 학장님은 근래 유명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상비약이 든 SNU Medicine bag을 선물하셨다. 기념식이 끝난 후 몇 동기들은 서로 그룹 지어서 익의부, 김우건 동문의 주선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못 왔던 최호영 군을 요양원으로 방문하여 해후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한다.

10월 6일 일요일 하루를 쉬고 다음날부터 단체 관광 여행이 시작되었다.

10월 7일 여행 제1일: 아침 8시 30분 호텔 신라 스테이 마포와 9시 President 호텔에서 미주동문가족 19명(8 부부: 김태환, 송원길, 신두식, 이종성, 이주영, 한종하, 이철남, 권정덕/홍선경)과 싱글(방효준, 오수황, 최준희), 한국의 싱글(김우건) 모두 20명이 28인승 대형 버스에 탑승, 3박 4일의 관광 여행을 떠났다. 버스는 남산 터널 2호를 통과해서 호남

은 동기가 오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우리는 다시 배를 타고 거제도로 돌아와서 맛있는 계장으로 점심을 먹은 후 부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마침내 저녁에 부산의 롯데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10월 9일 여행 둘째 날: 부산의 롯데 호텔은 5성급 호텔로서 큰 건물과 그에 걸맞은 온갖 맛있는 음식이 준비된 아침 뷔페가 있었다. 안내자는 시간 제한이 있으나 이것을 꼭 보아야 한다면서 근처 동백섬에서 있었던 APEC house로 인도하였다.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태평양에 인접한 21 members 국제 개발 기구로 2005년에 한국 이곳에서 회의가 있었으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나라 대표가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찍은 역사적 사진도 걸려있는 건물이다. 이 동백섬은 부산 앞 바다의 오륙도와 광안대교가 눈에 들어오며 동백꽃나무로 조경된 작은 섬이었다. 이곳을 떠나 특별 관광 해변 열차(바다를 관람하도록 좌석의 방향이 모두 바다 쪽으로 향한 총계 단 위에 긴 의자를 배치한 관람석이 있는)를 타고 해운대가 펼쳐지는 부산 바다를 감상하였는데 역시 해운대 비치의 아름다움은 세계적 수준임을 느꼈다. 해변 열차에서 내려 바다 안으로 뻗으며 세워진 조경 다리를 걸었는데 그 다리의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서 아래를 보면 아찔하게 바다에 빠질 것 같은 든 느낌이 들어 멘바다 경치로 눈을 돌려야 했다.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곳에서 너무 맛있게 기억나는 전복 가자미 미역국을 점심으로 먹고 순천시로 향했다. 순천에서는 “순천만 국가 공원”을 관람하였다. 나는 한국의 여러 도시에 국가 공원(National Park)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 순천만 공원은 매립지를 이용한 것인데 넓은 땅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특별한 theme를 가지고 설계한 구역도 있고 각 나라별의 특별한 정원을 소개하는 구역도 있는 아름답고 교육적인 공원이었으나 짧은 시간에 일부분만 보고 떠나야 하는 것이 아쉬웠다. 버스는 다시 달려 여수시에 도착하니 그곳 남해의 풍경은 한국의 자연적 수려함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뛰어나다고 감탄하게 만들었다. 여수 앞 바다에서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해변을 감상하고 해변가의 베네치아 호텔에 유숙했다. 이 호텔방의 한쪽 벽 전체가 바다를 향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닷속의 공중누각에 있는 느낌이었고 그 아름다운 바다 풍경 속에 계속 머물고 싶었으나 고단하여 잠에 빠져야 하는 것이 안타까울 지경이었다.

10월 8일 여행 둘째 날: 베네치아 호텔의 아침 뷔페에서 온갖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고 여수 바다의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 오동도를 인공으로 만든 육교를 통해 많은 동기가 기분 좋게 아침 산보를 하고 돌아와 다음 여행지인 거제도로 향했다. 거제 앞바다에는 기이한 암석들이 우뚝 우뚝 솟은 섬들이 있어서 “해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을 작은 Ferry Boat를 타고 작은 섬들 사이로 돌아가는 데 때로는 파도가 심하여 배가 전복될까봐 긴장되는 스릴도 느끼면서 외도로 향했다. “외도 보타니아”는 꽤 오래전에 은퇴하신 교사 내외분이 정착하여 몇 가구 안되는 이웃 주민들이 타계하신 다음, 섬 전체를 정원으로 가꾸기 시작하여 섬 전체가 조화롭게 꾸며진 섬이었다. 원래의 아름다운 남해 천연 식물 사이에 몇몇 야자수를 비롯한 아열대 식물을 심어 동백꽃, Palm tree 등으로 거대한 정원을 이루고 있었으며 정상에는 등대 하우스와 그리스 풍의 건물과 유럽풍의 동상들이 군데군데 서 있어서 외국에 유람 온 것 같은 착각과 신비로움도 느끼게 하는 문자 그대로 식물원 Botanical Island였다. 이곳은 아직도 매년 새로운 나무 심기와 조경 보충으로 계속 발전 변화한다고 한다. 다시 한번 노령과 약한 체력으로 인해 그리 높지 않은 섬 정상까지 많

10월 10일. 제4일: 여행의 마지막 날로 아침부터 버스를 달려〈다음면에 계속〉

지구촌 68년 졸업 동기 모임

국내외 동기 모임을 Zoom으로 했다. 졸업한 지 오는 2월이면 57년이 되어가고 모두들 80세 이상의 나이가 되었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대면으로 모이기가 힘들어졌다. 이번 첫 시도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문 18명이 참여할 수 있었다. 다만 날짜를 혼동한 이건일 형과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시간을 혼동한 안금환 교수는 회의가 다 끝난 후에 들어와서 아쉬웠다. 모두들 보고 싶어 했는데.

처음 Zoom 미팅을 준비할 때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메일이 있는 30명의 한국 동문과 39명의 미주 거주 동문들에게 Zoom Links를 2주 전에 보냈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하루 전인 12월 5일 또 보냈다. 약 10명의 이메일 주소가 수신이 거절되어 되돌아오고 그중 4명은 주소를 고쳐서 다시 보냈다.

결국 12월 6일 동부시간 저녁 8시에 기다리던 Zoom 회의가 시작됐다. 항상 책임감이 강한 우리의 영원한 회장인 서울의 김상우 형이 거의 1시간 전부터 들어오려고 애쓰고 있었다. 마침 집에 놀러온 막내 딸님이 있어서 핸드 전화를 이용하여 가르쳐 주어서 들어왔다. 서울 동기들은 주로 전화를 이용하고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아주 오래된(7-8년도 더 된) 것이어서 최신식인 전화가 더 편리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술적인 면에서 마이크 모양과 비디오 모양의 싸인을 열기 위하여 눌러도 즉시 반응이 안되니 천천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다. 한국에서는 작동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한다.

Champaign, Illinois에 거주하는 옛 날엔 동안이었던 새로운 모습의 김재관 형이 미국에서는 일 작으로 들어왔다. 이 분이 누구일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인천에 사는 임윤명 교수는 현지시간 토요일 아침 10시에 들어와서 똑같은 시간에 탄핵을 걱정하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볼 예정이라고 하기에 그러지 말고 우리 회의에 들어오라고 해서 마음을 바꾸고 참여하여서 고마웠다. 한국은 바로 계엄 선포와 취소로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저녁(서울은 아침) 이었다. 아시다시피

임형은 수년 전에 한국 최초로 어린이 재활병원(250 병상 최신식)을 설립한 공으로 국민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강조웅 형이 멀리서 참여하여서 여러 동문들과의 미담을 나누었다. 특히 88올림픽 때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구간에 올림픽 성화를 들고 달렸던 신용계 교수를 접하던 당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다. 당시 신 형은 그 성화를 위하여 조지타운 의대 병원 수술방에서 쓰는 링거병을 들고 연습을 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는 현재도 베지니아 지역 동기들의 건강을 챙기느라 지난 십여 년간 매주 동기 골프를 계획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 서울의대 미주총동창회 학회 모임이 있을 때도 그가 골프를 담당했다. 또한 주광국 형은 지난 9년간 미주동창회 Website를 창설 관할하면서 우리 동기의 카카오톡에도 시계탑을 올리는 노력을 함에 찬사를 받았다.

서울의 동기들은 이석현 님, 전병두 님 등 아직도 현직에서 일하는 동문이 많고 이홍규 교수는 새로 개원을 하느라고 일이 겹쳐서 참석을 못했다. Zoom 모임의 기술적인 면에서 김상우 회장이 한국동문들에게 최선의 방법을 다음 모임을 위하여 설명할 것으로 안다. 고국에 있는 우리 동기들 중에 장순명 동기는 오래전에 이미 장기려 의료 봉사상을 받은 것을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의 여러 동문들이 각자 본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경제와 의학 발전에 기여했음을 우리 모두 늘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금 늦게 들어온 김명원 화백은 얼굴의 피부가 윤택하고 노화현상이 전혀 없게 보여서 모두들 그 비결을 물었다. 그의 대답은 “〈NOXEMA〉라는 크림인데 얼굴에 바르고 1-2분 후에 씻어냅니다. 그리고 Moisturizing lotion을 항상 바르세요. 우리 병원에서는 Lubriderm Lotion을 씁니다.” 깜박 잊고 못 들어온 이건일 형의 의견도 비슷한데 그는 “Cetaphil이라는 moisturizing Cream을 샤워 후에 얼굴, 온몸에 바릅니다.”라고 말한다. 이 두 분은 모두 건조한 캘리포니아의 LA에 사는 사람들임을 독자는 참고하시기 바란다.

머리가 벗어졌거나 있어도 흰머리와

가을꽃

김병오 (69, 베지니아)



흔빛 서리 맞고 피어 있는 가을꽃
푸른 꽃잎, 다소곳한 꽃술, 잎맥은 투명하다

마르고 시들은 꽃대위에서 하늘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지금은 선한 무렵

봄 여름의 설렘과 절정을 반납하고
상실을 응시하던 찹한 눈빛
애초에 눈부시거나 농염한 사랑들은 이미 사라졌다

차가운 달빛, 늙은 벌레 소리 기대어 깨어 있는 사람아
한줌의 별빛과 사랑과 눈물만으로도
삶은 격류였다 대륙의 저미는 외로움 속에서

새벽별 시려 울고 싶어도 참고
가을도 늦어 기어이 피우는 꿈

저녁 종소리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가을꽃 앞에서
이제 가슴을 놓아라 가을이어서 좋다

그대는 북녘의 바람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가
굽은 길과 흔들리는 다리와 어두운 터널을 누추하지 않게 걸어 갈 수 있는가

저물어 얇은 시간만큼 갈망이 없겠는가

찬바람 흐느끼는 가을 들녁
시나브로 지는 因緣의 금을 바라보며
이제 멀리 있는 것들 눈 앞으로 맞이하는 선한 무렵

더 깊이 낙엽이 쌓이는 날
꽃대가 사라지면 날아오를 차비를
가을꽃은 숨기지 않는다

하늘 가에 달아 있는 저 그리움 있으니.

* 지난 호(51권 4호) 8면 ‘화엄사 가는 길’ 하단에 一多 多一로 게재된 것을
一卽多 多卽一로 정정합니다. 편집과정에서 ‘卽’자 누락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주름살에 산신령처럼 눈썹까지도 하얗게 된 우리이다. 졸업한 지 오는 2월이면 57년이 된다. 이미 티계한 분들도 있지만 오늘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반갑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정다운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앞으로 자주 이런 모임을 계획할 것이다. 60주년까지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남아 있어서 가끔 이렇게 나마 서로 얼굴을 다시 익히고 웃기

로 했다. 혹시 어려운 질병이 생겨도 잘 다스리면서 오래오래 연락하자고 약속하고 작별의 버튼을 눌렀다.

참석한 사람은 미국에서 주광국, 신용계, 서윤석, 김명원, 이규달, 신흥식(?), 김태기, 안세현, 김재관, 노영일, 한국에서는 김상우, 임윤명, 이호성,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조웅, 늙게 접속한 사람은 안금환, 이건일 이었다. 참고로 몇 장의 사진을 첨부한다. 글; 서윤석



<전면에서 계속> 점심시간에 속초에 도달했다. 이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유명한 설악산 경치를 산 위에서 감상한 다음 다시 버스를 타고 양양의 낙산사에 도착했다. 이 절은 신라시대의 고승 의상대사께서 창건한 절이라고 하며 절 주위에 정자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유명한 의상대였다. 수려한 산의 바위에서 아름다운 동해를 관망할 수 있는 그곳은 서서 숨 쉬는 것 자체로서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았다. 그 양양 시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2시간 30분 걸려 마침내 서울에 도착하니 밤 10시 경이었다. 우선 20명의 일행 중 아무도 병나지 않고 사고도 없이 이 여행이 끝났다는 것이 너무나 대견하고 감사했다. 사흘 밤을 자면서 나흘 동안 서해안, 남해안과 동해안으로 질주하며 이름이 있다는 명승지를 거의 다 관광한 강행군이었는데 매일 온화한 날씨와 선 바람과 비도 안 내린 일정 외에도 좋은 안내원 김한섭 씨를 만난 것은 우리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분은 지식과 경험에 많으셔서 가는 곳마다 역사와 지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많은 것에 적

절한 설명과 의견 교환을 이끌어 때때로의 긴 여행이 지루한 것을 잊게 해 주셨다. 또 돌아켜보니 버스 여행 중 때로 휴게실에 들려 군밤, 찰옥수수, 따끈한 호두과자, 찰보리빵 같은 군것질을 사서 나누어 먹는 재미도 쏠쏠하여 매 순간을 즐겼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3박 4일의 초급행 단체 관광 여행을 마친 후 다음날부터는 각 개인의 일

정이 펼쳐졌다. 매일 가족과 친지, 다른 친구들(이번에는 주로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나며 때로는 하루 두 팀을 만나게 되어서 여행보다 더 고단한 일정을 가졌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물렀다가 미국으로 귀국하였으나 일본 또는 동남아로 관광 여행을 계속하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부부는 호텔에 일주일 정도 계속 유숙하였는데 같은 호

텔에 있던 최준희, 이주영 부부와 김태환 부부 등과 함께 호텔 근처의 먹자촌에서 간단하지만 맛있게 끓인 설렁탕, 육개장 또는 갈매기살(돼지고기의 특정 부위) 구이를 맛보았고 어떤 날은 돌아오는 길에 노래방에 들려 60년대 유행가를 기분 내며 한 시간씩 불러 보았던 것도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마침내 집에 돌아와 피곤한 여정을 푸는데 2주 이상이 걸렸으나 동기 동창들과 함께 여러 날을 보낼 수 있었던 이 고유한 즐거움은 언제 또다시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또 우리는 이 행사를 통하여 의사라는 열매로 우리를 키워 낸 거목 같은 모교를 위해 한 국자 한 컵의 작은 물을 모아 조리개에 담아서 그 큰 나무뿌리에 뿌릴 수 있었다는 것도 보람 있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생애를 생각할 때 이번에 같이 모일 수 없었던 여러 동문들이 더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가까운 장래에 가까운 장소에서 계획해 보는 꿈을 또 가져 보며 우리 친구 모두의 오랜 건강과 안녕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비는 바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10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으나 밖은 아직도 여름 날씨다. 텍사스 어스틴을 떠나 달拉斯를 거쳐 인천공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 거의 하루 가까이 걸리는 먼 거리다. 2024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미국 체류 동기들과 일본 북해도 여행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설레임과 만남〉 만남은 설레임과 그리움, 호기심 같은 여려 감정을 지니는 복합적 행위다. 동기들과 만난다는 설레임과 호기심은 자율신경을 부추겨 심장 뛰고, 잠 설치며 소화도 잘 안되게 한다. 하지만 그리움과 즐거움이 편도체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소년의 마음처럼 들떠있다. 돌아보면 바람 세게 불고, 먼지 휘날리던 황량한 청량리 교정을 떠나, 라일락 향기와 마로니에 낙엽에 취했던 동승동 캠퍼스, 종로의 세느강 미라보다리 건너 연건동 병원까지 그 모습 모습들이 신기루같이 아득한 옛 추억에서 기어 나온다. 그곳에서 동기들과 6년을 함께 보낸 세월이 먼 게 아닌 바로 엊그제 같다. 짧음이 넘쳤던 그때의 우리는 지금 머리 위에 회백색 서리 낀 80줄의 늄다리들이 되고 말았다. 그 늄다리 학생들이 모여 일본 북해도 여행을 간다. 의대 23회 졸업 동기 모임의 마지막 공식 여행이다.

내 조국 한국

비행기는 일본 땅을 거쳐 동해를 막 통과한다. 문득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아득히 내려다보이는 조국의 강과 산들이 풍성하게 무르익는 가을철의 시적 아름다움을 풍긴다. 오랜 세월 힘든 나라들에 둘러싸여 고통받던 민족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마련해 준 고마운 조국 산천이다. 한때는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었지만 그에 적응하는 사회적 행동 기술을 익힌 우리 민족이다. 심리적으로 회복탄력성이 매우 강한 민족으로 발전한 것이다. 정치적 이념과 세대 간 갈등이 한국 사회를 휘적이고 있어도 끈질긴 인내와 자주성을 바라는 소망이 결국 이를 극복할 줄 믿는다. 조국을 떠난 이민자들의 가슴 한켠은 항상 베어있다. 고국을 방문할 때마다 비행기에서 유체이탈의 심리적 상태에 빠지고, 빈 가슴은 소년 시절의 추억 거리로 서서히 채워진다. 동지선달 겨울밤의 추위를 잊어버린 듯 “단팥죽 사시오” 감성 젖은 외침이 들려오는 듯싶다.

북해도

일본은 전에 와 보았지만 북해도는 처음이다. 15세기 중반 일본은 북해도에 진출하기 시작한다. 메이지 시대에 많은 일본인들이 정착하자 일본 영토에 공식적으로 편입된다. 그런 과정에서 평화스럽게 살아온 아이누족 북해도 원주민들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거나 내쫓긴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일본은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진출에 맞서기 위해 북해도를 전초기지로 삼는다. 서구 식민지 정책을 보고 배운 일본은 동방의 맹주로 군림하고 싶은 욕망에 이성을 잃는다. 그 결과 세계정세를 잘못 읽은 대가로 패전국이 되는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기에 이른다. 마치 테네시 월리엄스 작가의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에서 허상에 눈이 먼 여주인공이 현실을 외면하다 몰락하는 삶의 과정과 같은 맥락이다.

북해도 여행

대학 졸업한 지 55년, 입학식에서 동기들을 처음 만난 후의 61년 세월은 무한한 우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인간의 세월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주의 무한함 속에서도 개인의 실체와 집단의 흔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존재의 의미가 성립된다”라고 말한다. 그동안 20여 명의 동기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슬픔, 절망, 외로움에 빠지곤 했다. 그러나 하이데거 말처럼 저승의 동기들 혼과 이승의 동기들 몸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호흡을 나누는 북해도 여행을 즐겼다.

첫날, 열다섯 커플 30명이 10월 20일 오전 한양희 가이드와 함께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북해도 치토세 공항에 내렸다. 곧바로 대절한 관광버스를 타고 시코초 도야 국립공원에 속하는 시코초 호수로 갔다. 약 4만년 전 화산 폭발로 생긴 호수로 깊이 20미터까지 육안으로 보일 만큼 아주 깨끗하다. 수심도 매우 깊어 추운 북해도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으

리를 태우고 오케이 계곡의 산기슭에 위치한 소운교 호텔에 내려놓았다. 소운교 지역은 유달리 온천이 많아 온천마을이라 부른다. 경치 좋은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하늘의 별을 보며 야외 온천을 즐겼다.

넷째 날, 호텔에서 아침을 빵빵이 먹고

늙다리 학생들의 나들이

- 졸업 55주년 기념 모임 -

천양곡(69, 시카고)



로 알려져 있다. 호수 주위 경관이 뛰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다. 우리 일행은 지역의 명물인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호수를 거닐었다. 비행기 속에 움츠려있던 허파 공기를 호수의 맑은 공기로 채웠다. 숙소는 도야 호텔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칼륨, 마그네슘, 황산 성분이 많은 100% 자연수 온천에서 첫날의 피로를 풀었다.

둘째 날, 어제같이 날씨는 청명하고 출지도 않았다. 호텔 아침 식사 후 그리 높지 않지만 지금도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활화산인 쇼와진 산을 버스 창문으로 바라보며 근처에 있는 우즈신잔 정상으로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갔다. 높은 곳에서 쇼와진 산을 다시 바라보니 그의 모습은 더 아름답고 신비하게 보였다. 점심 먹고 유람선을 타고 도야호수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을 돌아 보았다. 노보리베츠 도시로 이동하는 중 사이로 전망대에 들려 도야호수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만끽했다. 노보리베츠 시대촌을 방문해 애도 시대의 사회, 풍속, 문화생활을 둘러보고 웃고 재미있는 일본 전통문화 연극, 린자와 사무라이 액션 시대극을 관람했다. 린자 쇼를 보며 조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생각나 씁쓸한 기분도 들었다. 노보리베츠 어느 지역은 수많은 온천들에게 깨끗한 온천수를 공급해 주는 곳이라 수증기와 유황 냄새가 품기는 지속 계곡이라 부른다. 숙소는 이름난 노보리베츠 그랜드 호텔에 투숙하여 풍성한 저녁과 온천을 즐겼다.

셋째 날, 비는 조금 내린 뒤 그친 춥지 않은 날씨다. 라벤더 꽃마을 후라노로 이동했다. 라벤더는 7월 중순에 화사하게 만발한다. 지금은 이미 지고 없지만 넓은 평야와 계곡에 펼쳐진 여러 꽃나무들의 꽃밭 풍치를 보여 준다. 팜도미타 농장에서 이곳의 명물 라벤더 아이스크림을 맛본 후 비에이로 향했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 비에이의 어느 지대는 햇볕에 의해 각종 색깔의 무늬들을 서로 모아 붙인 모양 같아서 패치워크 길이라 한다. 마일드 세븐 언덕으로 불리는 대지는 세계 유명 회사들의 광고에 등장하는 7개 나무들이 군데군데 서 있다. 각각의 나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낫산 자동차 광고의 ‘켄과 매리의 나무’ 등을 관광버스 차창으로 감상했다. 비에이 지역의 토양과 온천수에 의해 생긴 에메랄드 색의 아름답고 신비한 아이오케 연못, 그리고 흰 수염 폭포가 있는 곳이라 영화 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아이오케 연못 주위를 좀 걷고, 근처의 계곡 절벽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흰 수염 폭포를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용암총을 따라 내려오는 하얀 폭포수가 마치 흰 수염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버스는 우

유성폭포와 운하폭포를 구경했다. 꼬리가 혜성처럼 길게 늘어졌다 해서 유성폭포라 부른다. 두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요란해서 잠시 귀가 먹먹했다. 근처에 위치한 구로다케 로프웨이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좋아 사진도 여러 장 찍었다. 점심 후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삿포로 시에 도착했다. 눈의 고장이며 맥주의 고장인 삿포로 맥주 박물관과 맥주 공장을 견학한 뒤 공장에서 맥주도 사서 맛보았다. 맥주 공장은 과거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120년 전통을 자랑한다. 동기 사모님들은 길 건너에 있는 유니클로 옷 가게로 가서 샤피ング 하기에 바빴다. 뒤이어 일본 전통종교인 북해도 신궁을 구경하고 삿포로 시내에 위치한 오도리 공원을 산책도 했다. 숙소는 삿포로 프린스 호텔에 묵었다. 저녁 후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원동 동기 회장의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건배와 가라오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종의 훠어웨이 여행 파티였다.

다섯째 날, 북해도 여행의 마지막 날이다. 아침 먹고 관광버스로 치토세 공항으로 가는 도중 버스 창문으로 삿포로 시계탑을 보았다. 여행 중 처음으로 잠시 면세점에 들려 선물도 살 수 있었다. 인천 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여 동기들과 사모님들과 아쉬움의 이별을 고했다.

북해도는 화려한 단풍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자연의 풍자와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다. 황홀한 일출과 일몰, 화산 폭발로 형성된 분화구에 물이 고여 만들 어진 여러 호수, 한여름에도 정상에 덮인 높고 장엄한 산, 계절 따라 피는 꽃무리와 골짜기는 신비한 자태를 뽐낸다. 이런 절경에 빠져 적지 않은 일본 화가, 작가, 사진가들이 북해도 여행 중에 그대로 머물러 산다고 한다. 우리도 짧은 시간 안에 볼 것은 거의 다 보고 온 것 같다.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여행을 마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모든 동기들이 잘 협조 협력하고 조심해서 얻은 좋은 결과이다.

내 이웃 일본

며칠 둘러보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본 사람과 일본 사회는 예전과 크게 변한 듯싶지 않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친절하고, 예의 바른 행동, 타인을 배려하고 겸손한 생활을 하는 일본인의 채취가 풍긴다. 이렇게 외부로 나타난 일본 사람의 좋은 점들은 배울만하다. 하지만 일본인 내면의 전통적 의식 구조는 매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 다른 나라에 일본 물건을 많아 팔아도 정작 딴 나라 물건은 사지 않는다. 전쟁에 진 미국을 혐오하는 대신 미국의 비위를 잘 맞추고 있다. 자

존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며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다. 최근 온건파 정치인이 일본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그는 야스쿠니 참배에 가지 않고 과거의 전쟁 책임을 언급한 사실은 일본에 대한 나의 편견을 적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조국에 바라는 말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미국 동포들은 한국의 안보에 관심과 걱정이 많다. 조국을 다시 잊어버릴까 하는 잠재적 의식 때문이다. 서울 체류 중 어느 날 택시 운전기사에게 물었다. “전쟁이 날까 두렵지 않아요?” 기사분은 백미러로 헬互联互通 쳐다보더니 “벤츠 몰고 땅땅거리고 사는 김정은이 자기도 죽을건대 그러겠어요?”라며 반문한다. 그분은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면 기회를 노리고 있는 미국이 이때다 하며 북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란다. 사실 한국에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작 한국 사람들은 전쟁 위험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전쟁은 권력자들의 과대 망상적 욕망이 이성과 현실을 눈멀게 하여 일어난 사실임을 기억해야 한다. 기사분에게 한 가지 더 물었다.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참 생각하더니 “잘사는 이웃사촌처럼 밉지만 사이좋게 지내야죠”

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에 파생된 의료공백, 뉴라이트 역사관, 그리고 극심한 빈부 차이와 안보 문제가 한국 사회를 불신과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뉴라이트 역사관과 핵 보유 이슈가 그렇다. 일본은 국토도 넓고 인구도 많아 여러모로 우리보다 강하다. 이미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우라늄 핵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허가받아 언제든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물론 평화 목적 이어야 하고 국제 감시하에서 이루어진다는 단서는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아야 할 두려운 이웃이다.

한국은 경제발전에 이어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 화장품, 케이 무기를 비롯 셀룰, TV, 냉장고, 에어컨디션, 세탁기, 배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 짓고, 건물, 도로, 다리 건설하는 기술 등 세계가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더구나 최근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위상이 돋보인다. 그래도 자만과 자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도 이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을 발휘해 일본같이 최소한 핵농축을 할 수 있도록 국제적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래야 일본과 눈높이 맞는 자세로 사이 좋은 이웃사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북한 역시 이제 엄연한 핵보유국이 된 현실이다. 남북한 통일이 지상목표나 그게 안될 때 차선책으로 북한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다시 만남

동기들과 이번의 만남은 대학로 서래향 음식점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동기들은 건강 잘챙기고, 마음 심히 상하지 않고 살았는지 모두 행복한 모습이었다. 거의 모두 의료 현장을 떠나 이제 주어진 삶에 열심인 듯싶었다. 다음 날 한국과 미국에 체류하는 열여섯 동기 커플이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일본으로 향했다. 거주지를 떠나는 것은 스트레스다. 그러나 북해도 여행은 동기들과 서로에 대하여 묻고, 답하고, 웃고, 온천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유익한 스트레스이었다. 20여 년간 동기 회장으로 봉사하는 김원동 동기, 우리 동기의 〈다음면에〉 자랑 신영수 동기, 사진가와 산악인으로 변신한 엄대용 동기를 비롯 모든 동기들과 이제는 작별을 고해야 한다. 아쉬움을 뒤로 두고 그리움이 서려있는 다시 만남을 기대하며 태평양을 건넜다.

맺는 말

고국 방문과 의대 23회 졸업 동기의 북해도 여행은 가을과 함께 찾아온 의미 가득한 행사였다. 4박 5일 동안 동기들과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 〈다음면에 계속〉



추석을 맞아 만두를 빚는다. 상 위에 빚어진 하얀 만두는, 강물에 띠워 진 쪽배가 되었다, 그리움에 물든 밤하늘의 반달이었나 하면, 세월의 언덕을 사뿐히 내딛는 수줍은 버선발이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다진 새우에 부추를 더해 반달 모양의 만두를 만들었다. 하지만 나의 무의식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달을 창조하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부추와 돼지고기를 섞어 반달 모양을 만든 후, 초승달을 닮은 통 새우 한 마리를 한편에 세우니 어느새 보름달같이 둥근 만두가 생겨났다. 이제 팔월 한가위 달은 밤하늘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밤상 위에도 올라내 영훈을 따뜻하게 위로해 준다.

한 주머니에 여러 종류의 음식을 품고 있는 만두는, 내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시(市)를 닮았다. 갖가지 소가 다양한 조화를 이루는 만두 속같이, 한 공간에 동양인과 서양인 그리고 스페니쉬 등의 여려 민족이 밀집해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까, 로스앤젤레스는 여러 종류의 음식을 한 주머니에 품은 만두같이, 나름대로의 맛과 멋이 버무려져 새로운 세상으로 탄생되었다. 각각의 개성을 조화롭게 엮어 고유하고 그윽한 맛이 되었으니, 다른 만큼 독특하고 아름답다.

생각해 보면 만두와 삶은 참 많이도 닮았다 싶다. 삶이라는 주머니에 누구나 나름대로의 그 무엇을 담아도 괜찮은 듯, 만두 역시 그 안에 무엇을 넣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칼칼한 김치도 괜찮고, 기름진 돼지고기도 풍요로운 맛이 넘쳐나서 좋다. 게다가 만두는 한 가지 속만 넣거나, 아니면 몇 가지를 섞어 넣어도 그런 대로 무난하다. 그것은 삶의 길이 단순한 외길이거나 몇 가지 길을 동시에 걷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치와 같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연하고 부드러운 만두피는, 속에 어떤 것이라도 감싸 안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이 우리 삶과 비슷하다. 만두 속의 간이 짜든 싱겁든 맛이 어떻든 만두피는 불평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을 말없이 받아들여 품다.

만두 속에는 푸른 달과 밤하늘의 별 그리고 생명의 해가 숨 쉬고 있는 것 같다. 반짝이는 태양에서 힘을 얻은 푸른 부추와 별 밤에 숙성된 잘 익은 김치와 달빛 바닷속에서 허물을 벗은 새우가 그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빚은 만두는 상현달과 하현달같이 암전하거나 반듯한 반달 모양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답해지자 반달에 초승달 모양을 덧붙여 보름달을 만들어 갔고, 마지막에는 얼마 남지

않은 재료로 그믐달도 빚어냈다. 아마도 한가위를 맞으며 내 삶을 이어준 달을, 만두로 표현하고 싶었나 보다.

만두에는 지나가는 세월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몇 달이 지나고 몇 해가 흘러야 한 번씩 먹게 되는 만두이기에, 그것을 먹을 때마다 흘러가는 시간을 절감하게 된다. 빚을 때마다 만두와 내 삶의 모양새는 다르지만, 구름 같은 세월이 바람처럼 흐르고 있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돌아보면 만두에는 내 삶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듯도 싶다. 그것은 나의 일부가 되어 삶의 마디마디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릴 적, 시골에 사는 외할머니가 서울로 올라오는 날이면, 우리집은 꿩만두를 빚었다. 이모부가 사냥해 온 꿩으로 만든 만두는 반가운 만남의 축제였다. 온 가족이 두레상에 둘러앉아 할머니와 함께 먹던 만두는 영훈이 따뜻해지는 행복이었다. 그 후 여러 해의 보름달이 생겼다 없어지며 맞게 된 중학교 입학식 날 온 식구가 소공동 중국집에 마주 앉아 즐겨 먹었던 둘만두와 군만두 그리고 찐 만두는 미래를 향한 밝은 희망이 아니었을까.

가정을 이룬 뒤 이곳 수만 리 먼 타관에서 한가위를 맞으며 또 다시 만두를 빚는다. 이제 내가 만드는 만두에는 한과 사랑과 추억이 담긴, 디아스포라의 오렌지 빛 향수일 것도 같다. 지금의 만두는 내 영훈이 아득한 고향으로 떠나고 싶을 때, 나를 태우고 떠나는 작은 둑단배이다.

삶을 마주하듯, 단정히 앉아 만두를 빚는다. 분수에 맞게 마련한 만두 속을, 세상살이에서 처럼 둉글둥글 모나지 않게 빚어간다. 생을 빚어가듯 만두소를 육심껏 많이 넣어 터지지 않게 하고, 너무 적게 넣어 인색하지 않게 한다. 또 만두소의 간을 조화로운 삶의 간을 맞추듯, 너무 짜거나 싱겁지 않게 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그런가 하면 주변 상황에 맞게 세상일을 처리하듯, 빚을 때도 모든 과정을 순리에 맞게 한다.

만두를 빚는 일과 살아가는 법이 크게 다르지 않겠다 싶다. 왜냐하면 만두 요리에는 우리가 세상살이를 꾸려가는 이치와 순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만두가 숙성되어 가는 과정은 삶을 터득해 가는

지침서가 된다고나 할까. 그리 보면 아직 세상살이에 미숙한 내가 빚는 만두는, 인생 수행 과정의 일부분이 될지도 모른다. 또 어찌 살피면 만두를 만들어가는 일은 삶을 살하게 숙성시키고 싶은 나의 작은 의지일 것도 같다.

세월 속에 익어가는 나의 만두는 언제쯤이나 환한 보름달이 되어, 넉넉하고도 조화롭게 평화로운 얼굴을 세상에 내 보일 수 있을까.

편집자 주: 12월 13일 별세하신 수필가 김영애 여사를 애도합니다. 이 글은 시계탑에 보내주신 유작이 되었습니다.



<전면에서 계속> 놀거리를 즐겼다. 무엇보다 동기들과 함께 지내며 감정연결 속에 끊 빼진 잊지 못할 늙다리 학생들의 나들이였다. 천상병 시인의 가벼운 발걸음인 귀천처럼 자연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지닌 만남과 헤어짐의 애잔함이 서린 삶의 한 코너를 장식한 여정이었다. 동기들은 이제 오늘 건강해도 내일을 알

수 없는 80대의 인생 베테랑들이다. 에릭슨 말대로 노년의 자아통합과 매슬러 육구이론의 끝판인 자아실현을 이루어 아름다운 마무리 인생으로 매듭지면 좋겠다.

또한 때 지어 이동하는 철새같이 일년에 한 번쯤 서로 얼굴 맞댈 수 있는 희망도 생각해 본다.



미국을 바로 보고 바로 알자 (1)

김 해 암(58, 대뉴욕)

미국의 정치 풍토가 어떻게 변해 가는가?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것에 비할 바 아닌 환호가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에 선출되면서 미국의 문화가 선 풍적으로 급변하였다. 왜 그랬을까?

뉴욕 타임스의 현재 논평가로 유명한 David Brooks(NYT Opinion Section, 12/22/2024 논설, "My Decade-Long Journey to Belie" 참조)의 동료요, 선직 논평가로 이름났던 Stanley Fish는 1995-2013까지 사설과 논설 100여 편을 모아, "Think Again"라는 미국의 문화 평론을 출판하였다.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은 생각하는 방법, 인식과 해설의 이모저모인데, 그 책의 내용이 흥미로워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그 책의 내용의 쟁점은 미국의 민주주의, 유태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정치 참여, 인종 차별, 헌법의 내용과 실제, 현실과 이상 등을 잘 다루었다.

나는 1959년에 동양인 의사로 취직이 되어 뉴욕에 와서 당시의 미국 사정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당시에 내가 본 미국은 이러하다.

한국동란이 끝나자 미국은 2차 세계 대전의 종말이 가져다준 경제적 부흥이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구라파를 재건 하던 비용에 비하면 한국 경제원조는 비교할 바 없이 적은 비용으로 충당되었다. 미국의 생산 공장은 세계시장을 유일하게 석권하고 있었고, 서독의 경제력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었다. 미국 정부의 재정은 너무도 커서 금 본위의 화폐를 황금으로 국고에 저장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발표했고, 부채는 물론 한 푼도 없었다. 지금에 비하면 별천지 세상이었던 것이다. 모든 경제원조, 낡은 기관차, 화물차, 의류 등 기부 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상은 너그러웠다.

국민은 돈벌이에 바쁘고 직장은 얼마든지 있어, 노동자들이 2-3 직장을 가지고, 세금은 적고, 사회복지는 신청하는 즉시 허락되는 판국이었다. 1969년에 있던 Woodstock Music Festival, Bethel New York State 때까지도 미국의 재정적 윤택은 계속되었다. 히피족 환자들이 나를 보고 Woodstock에 같이 가자고 하며, 말하기를, "Why Dr. Kim, do you work so hard? Government has money, do not work for them."라고 말하며, 월남 전쟁은 필요 없는 전쟁이라 징병 회피를 일삼던 때였다.

흑인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양육비가 많으니 아이가 5명만 되면, 정부의 자녀 양육비가 많이 나와 캐딜락 새차를 살수 있다고 장담하던 기억이 새롭다. 이렇게 윤택했던 미국 사회가 흑인 해방의 계기가 되었고,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이 느슨해지고, 정치 참여를 허락하게 되었던 것이 문화적 배경이다.

흑인 병사들의 차별, 별도 편성은 한국 동란 때까지도 지속되었다. 1964년에 일어난 흑인 아동의 백인 아동 학교 입학으로 민권 운동이 시작된 것은 유명하다.

미국의 사회 구조는 건국 초기부터 앵글로색슨 위주의 나라로, 구라파 소수 민족들, 애란, 이탈리, 동 구라파 제국, 스페인 등, 가톨릭 국가들의 정치 참여를 거부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케네디 대통령의 인기가 좋았던 것도 구라파 소수 민족의 정치 영입이 시작된 것으로 환영받은 것이었다.

가톨릭 신자 애란인 케네디가 암살 당한 것은 영국인 위주인 앵글로색슨의 복귀를 시도한 것으로 보았지 당시 소련의 음모가 아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

다. 왜 그러면 백인 소수 민족인 애란인이 대통령 됨을 막으려 했을까?

1960년 초에는 미국의 노동력 부족과 함께 기술인들, 즉 의사, 기술자, 공학도, 간호사, 가정부, 노동자 등이 부족하여 사회 발전에 지장이 커서 이민을 받아들이고, 케네디는 구라파 백인 우선주의를 바꾸어 가족 위주의 이민법을 창설하였다.

케네디의 실수는 LBJ로 알려진 존슨을 부통령으로 삼은 것이어서, 그 후에는 유능한 부통령을 선택하지 않는 풍조를 조성하였다. 존슨 대통령이 재선으로 앵글로 정치 주도권이 회복된 듯하였으나 앵글로 정치권은 이미 무너진 바 되었다. 뉴욕 주의 예를 들면 넬슨 로커 펠라 주지사 후에는 죠지 페타키, 파란 가톨릭 출신이, 그 다음에는 이태리계, 마리오 쿠오모 등이 당선됨으로써 민주당 소수 백인 그룹이 득세하기에 이르렀다.

공화당이 앵글로 중심의 영국계 미국인의 전통파임은 알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는 잘 인식되지 않고 있다.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선출함으로써, 두 정당이 싸우던 것이 멈춘 것으로 보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새로운 풍조가 조성되어 양당 정치권 극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치 이념의 차이로 형성되었던 민주당이 가톨릭 소수 국가, 민족, 그리고 흑인, 히스패닉 등 남미 제국 참여로 민주당이 본래의 정치이념을 저버리게 되어, 결국에는 다수인 앵글로 시민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의 미국의 정치 판국은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살펴보자.

케네디 대통령 선출이 미국 정치의 분수령을 이룬 것은 사실상 정곡을 찍은 것 이지만, 그분의 부주의로 암살 당한 것은 소수 백인계 특히 가톨릭 국가들의 정치 참여에 큰 충격을 주고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유태인들이 앵글로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애란 가톨릭이 당선되었으니, 유태인 대통령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던 1960년대의 상황을 나는 목격 한 바 있다. 현시점에서 많은 동양인들은 미국의 유태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사실은 그들은 애란 가톨릭 세력 이상으로 차별을 받으므로 정치 참여보다 경제 진출로 나가는 방향으로 간 것이 불과 반세기를 넘지 않았다.

나의 경험으로 보면, 1980년대까지도 월가의 변호사 거리의 오피스를 유태인에게는 대여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면 동양인의 경우는 어떨까?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한국인들이 미국의 한국동란 개입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 민이 나라가 부강해지니 그 혜택을 받으니까 너그러울 수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 물론 아무리 물질적 원조를 했더라도 정신적 뒷받침은 기독교 정신에 있다고 보지만, 우리의 사대사상 전통을 위해서라도 미국을 새롭게 봐야 하겠다.

2024년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파한 이유가 많다지만 내가 보기에는 백인, 소수민족과 유색 인종들이 힘을 합한 목적이식이 결여했다는 사실을 들고 싶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자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어떻게 뜻있는 일을 하며 리더십을 길러가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데 민주당의 문제가 있었다. [다음호에 2편 계속]

임낙중(59) 님의 남긴 원고



아내 (1)

책이 나오면 아내가 읽어볼 줄 알고 있는데 아내를 나쁘게 평할 간이 큰 남자가 세상에 있을까 싶다. 그래서 위선(僞善)에 찬 글이 많고 이런 위선이 범람하기 때문에 솔직히 진실한 글을 마땅히 찾아보기 힘들다. 읽고 나서 참 솔직한 글이 몇이나 되는지 내 스스로 묻는다. 그러나 팔십이 넘은 내가 아내에게 아부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고 남녀동등의 세상이 된지도 오래되었으니 아내도 나를 비판할 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고 이 글을 쓰는 만큼 나는 될수록 거짓에서 떨어지고 싶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아내 자랑하는 사람은 불출(不出)이라고 했다. 못난 놈이라는 뜻이다. 남녀가 결합하면 죽음 외에는 둘을 떼어놓지 못하는 법 밑에 살았으니 아내 자랑은 자기 자랑처럼 들리기 쉽고 따라서 아무리 아내가 훌륭하다 싶어도 자랑은 Waste of Time이 되기 쉬웠다. 입을 봉하는 자가 현명한 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자기 아내의 음식 솜씨나 기타 인품을 칭찬하는 미국 남자를 보고 처음에는 불출이들의 습관이라 여겼고 지금은 아내 칭찬은 금기사항을 깨는 느낌이 든다. 부부 결합이 돌에 색인 법일진댄 구태여 아내 사랑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고 그런 곳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불출이로 보일 수 있으며 자기 아내를 칭찬한다는 것이 동양의 겹양지덕에 위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아내 칭찬이 아낙네들 사이에 시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조심스러웠다.

내 일생 동안에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이혼이 50% 가까이 치솟고 혼자 살겠다는 독신 찬미론도 공공해졌으며 결혼하고도 아이도 갖지 않겠다는 여성도, 심지어 남성까지도 흔히 보게 되었다. 동성연애라면 숨겨 세상에 감추던 시대가 지났다. 동성애 간에 결혼이 허락된 주가 늘고 성경을 믿으면서 여자도 목사직을 가질 수 있는 교파가 늘고 있다. 책에서만 읽었던 원시시대에 있었다는 여권 중심 사회나 모계사회로 넘어가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나는 사형제를 두었는데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지만 남은 아이들은 부엌일, 아이 키우는 일 등 내가 자랄 때는 여자들이 전담 하던 일을 모두가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 Bread Earner 노릇도 도맡아 한다. 이제 부끄러움 없는 나이에 이르렀으니 아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대가 겪은 과거와 21세기에 겪은 부부관계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글로 남기고 싶었다. 나는 어려서 부엌에 들어서면 어머님이 이놈 불알을 까겠다고 농담하실 만큼 부엌일은 나와 아내가 관계가 없는 여자들만의 일이었다는 것을 기록해둔다. 서두가 길어지고 글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 그냥 내 개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써 내려갈까 한다. 너무 아내를 비판하면 내가 이 조시대의 뒤떨어진 남편으로 그려질 것이고 아내를 칭찬하면 어느 서양문화를 따라가는 불출이가 될 판이니 그 정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써 내려가야겠다.

나는 의과대학을 1959년에 졸업하고 3년째 Kim's Plan 수련 중에 1962년에 결혼식을 올렸다. Astonia 예식장에서 윤일선 총장님의 주례로 예식을 치렀는데 내가 만 27세, 아내는 만 22세였으니

지금으로 보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셈이다. 그 당시에 조금 빠른 편이었다. 나는 열여섯 살에 Sex에 눈을 떴으니 27세까지는 11년을 기다린 셈이다. 그러니 내 결혼이 빠른 것인지 늦은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는 수련의 신분이니 경제적으로는 결혼할 자격이 못된 셈이고 여자를 보면 안고 싶은지가 11년이나 지났으니 결혼이 인위적으로 늦었다고 할 수가 있다. 생물학적으로는 늦었다는 말이다. 어른들이 장가가야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받는 돈으로 쌀 몇 말 값밖에 안되니 속으로 내 형편에는 울화가 치밀었지만 그때 사회 구조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섹스를 무시한 채 사는 법을 배운 셈이다. 간혹 부잣집 색시를 거론할 때도 있었는데 처갓집 신세를 지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속으로 장가가고 싶어서 않고 있었다고나 할까. 장가를 들어야 구멍 난 양말이라도 살림에 남는다느니 색시도 저 먹을 것을 타고 온다느니 하는 말을 귀가 창이 나도록 들었는데 마지막에는 둘대로 돼라 차마산 사람의 목에 거미줄 치라 하는 속담 까지 가세하여 나를 괴롭혔고 결국 어른 말씀을 따라 나는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이다. 못 이기는 체하고 내 책임감을 잠시 잊었더니 내가 행복을 얻은 셈이다.

당시 레지던트 야간 개업이 성행했다. 대학 레지던트들이 병원 일이 끝나면 밤에 나가서 환자를 보았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여 야간 개업을 안 하는 분들도 간혹 있었지만 그런 부잣집 출신은 대단히 귀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야간 개업을 했고 그 때문에 레지던트를 하는 동안에 공부를 등한히 한 것도 사실이다. 미아리에서 야간 개업을 하고 있던 이년 선배 흥순원 선생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삼 개월씩 파견 근무를 하던 흥성 도립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3개월 동안 자기 야간 개업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내게 제의가 왔고 불감청(不敢請)이 인정되고 소원(固所願)이란 말 그대로다.

나도 야간 개업을 하고 싶어도 Kim's Plan으로 대학에 군위탁으로 수련을 받고 있어서 야간 개업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처지였다. 야간 개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흥 선배의 제의에 선뜻 응했고 수입과 비용을 제하고 반씩 나누는 식으로 흥 선배 야간 개업 의원으로 나갔다. 이 부수입 때문에 결혼해 볼 자신도 생겼다고 고백한다. 다음 해는 흥 선생이 대학병원 수련을 끝내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흥 선생이 같은 조건으로 첫 1년을 보아달라고 했고 나도 수입이 필요하여 그 제의를 수락했다. 모두가 내 운명의 장난이었다. 그 덕택에 결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할 방도가 생긴 것이다.

박종근 동기의 소개로 생약연구소에서 시험관을 닦고 있는 지금의 아내를 면발치에서 처음 보았고 그 후로 데이트를 시작했고 첫인상이 좋았다고 하겠다.

아내가 될 사람은 이화대학교 약학대학을 막 졸업하고 배우자를 구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보수로 생약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던 우 박사의 주선으로 연구소에서 무보수로 조수 노릇을 하고 있었다. 첫인상은 순진해 보였다. 처음으로 전화로 불러서 나오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뜻이 떨렸다. 아마도 자신이 없었던 거다. 무슨 죄를 진 사람처럼 떨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우습다. 처음 데이트 교섭에 그렇게 떨었지만 그 후로는 쉬웠다. 대개 다음 데이트를 미리 약속하니 전화를 거는 일은 드물었다. 인연이 되어 그랬는지 아내 될 사람은 내가 가지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잘 따라나왔다. 아무 말 없이 잘 따라나오니 점차 책임감이 생겼다.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아직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수련의라고 결혼 못 할 이유를 하소

Living The Dream

Lee, Hahn Joong(65, CA)



Out of 24 hours a day whether I'm awake or in a dream,
So many moments stand out like diamonds, each
Reminding me that you are alive, each
Speaking to me every wish of your lifetime is being fulfilled, each
Sparkling and stretching one after another forward in front of me,
But much longer backwards endlessly like watching millions of cars
Along the thruway I-5 in the middle of night all the way from here,
San Juan Capistrano to Los Angeles where some of my sweet grandchildren are.

Each moment is so precious, so full of God's grace, so powerful
Of HIS light that I can see all the smiling faces of my loved ones,
All my friends of my entire lifetime,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transcending time and space all day long if I want to.

Here in this mysterious land of brilliant peaceful light,
perhaps
physicists' quantum mechanics and entanglement may be the law of nature.
Every moment is wide open to the universe of infinite space,
which is so full of HIS light,
I don't need to speak a word.
My heart understands and feels everybody's heart so clearly and warmly.
I certainly can see freely anyone I want to see and wanted to see.

Each sparkling moment absorbs me and swallows me and
I'm born into a new world,
where I find heavenly peace and love.

연했다. 아내 될 사람은 서슴지 않고 그 동안 약국을 차리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대답했다. 나의 소심함을 덜어주었다. 분명히 시집을 오겠다는 표시이다. 그렇게 구혼을 했다. 데이트는 주로 서울 근교에서 명승지와 왕릉 등이었고 식사는 하구 남강 등의 화식집 골목마다 있었던 중국집 그리고 한식은 우래옥, 한국회관에서 주로 했다. 아내의 거처는 남산으로 올라가는 육교 옆 박 외과 병원이었는데 일본 사람이 살던 3층 집을 수리해서 꾸민 집이었다. 당시 양동 변두리의 집이어서 근방에 가면 호객(呼客) 하는 젊은 친구들이 소매를 끌어당기던 그런 동네이기도 했다.

데이트 중에는 간단들이 겁이 났고 데이트하는 여자를 두고 나만 도망칠 수도 없다고 생각해서 흥기를 놀 주머니에 지니고 데이트를 했다. 생각해 보면 흥기를 쓸 기회가 없었으니 참으로 다행이었는데 그때는 젊었을 때여서 나도 만용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신랑감으로 나는 10남매의 장남이고 시누이가 일곱이라는 점이 약점이라고 느꼈고 대신 서울의 대를 수석으로 나왔다는 것은 나의 강점이기도 했다고 스스로를 평했다.

결혼으로 골인하게 한 중요한 리드는 장모님이었다. 지금은 사라졌겠지만 서

울역 앞 백마 다방이 우리 둘이 만나는 시발점이었고 그 집 커피를 많이 마셨다.

데이트를 시작한 것이 1961년 가을이었고 부모님이 선을 본 것이 62년 봄이었다.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기어들어가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마음에 드는 색시가 하나 생겼다고 부모님께 여쭈었다. 웬지

부끄럽고 두려워서 내 목소리가 기어들

어가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퇴자를 놀까봐 두려워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며칠 후

아버님 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나

와 함께 색시를 보러 가자고 하셨다.

아내와 장모 될 분이 함께 나와서 두 가족

이 창경원에서 만나서 산책을 했다. 아내

는 흰색 바탕에 노란 줄을 친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예뻐보였다. 부모님은 지체

없이 남대문에 있는 박 외과에 들러서 저

희끼리 좋아하는 모양이니 기다릴 것이

있겠느냐면서 약혼 날짜와 장소를 잡았

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처갓집에

서는 좀 당황했겠지만 원래 아버지는 그런 일에 주저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사실 나와 아내가 우리끼리 결정을 하기 전이라 당황했지만 어른들이 서두르시니 열렬결에 따라갔다고나 할까. 결혼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밀려서 장가가는 기분이었다. 아내에게 정식 청혼하기 전이었다. 삼부 다이아 약혼반지도 아버지가 마련했고 장모 되실 분이 손수 나를 데려가 양복도 맞추었다. 무척 황송했던 기분만 기억에 남는다. 예식장, 신혼여행 예약도 나는 통지만 받았고 심지어 온양행 기차표도 예약해서 샀다고 나에게 알렸다. 나는 허수아비가 된 기분이었다고 기억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알 수가 없었다. 주례로 윤일선 박사님을 정했다. 그 일도 장인어른이 직접 교섭했고 나는 통지만 받았다. 나는 물 위에 둑둥 밀려가는 기분이었는데 철이 없었다고 할지 너무 모른다고 할지 그런 심정이었다.

그때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지 그런 문제는 다 잊어버리고 단지 흥분한 채로 결혼식을 올렸고 온양행 기차를 탔으며 신부화장을 한 아내를 쳐다보니 저 예쁜 처녀가 내 색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윤일선 박사가 한 주례사는 전혀 내용이 생각나지 않았다.

온천 호텔방에 들어서자 나는 창문의 커튼을 모두 내려 방을 어둡게 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내부터 안았다.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어떻게 아내가 내가 하자는 대로 따랐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철이 없었다.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보니 평범한 대답이었다. 신부는 신랑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하는 줄로 알았다고 했는데 그 답이 정답인 것 같다.

내가 결혼한 해는 Kim's Plan으로 외과 1년 Residency를 끝내고 심지를 뽑아서 정형외과 한문식 선생님 밑으로 들어간 해다. 한문식 선생님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1943년에 졸업하신 분으로 생화학의 이진순 선생님, 비뇨기과의 주근원 선생님과 동기이시다. 고향이 경상북도 대구이고 학생 때 육상 선수였으며 수재로 이미 명성을 날렸는데 나도 그분 밑에서 그분의 인품을 익혔고 그분을 무척 존경하게 되었다. 지금도〈다음면에〉

새우젓, 나훈아의 달, 그리고 men



눈치 코치

'hunch'는 워낙 15세기경 '튀어나오다' 혹은 '돌출하다'는 말이었고 나중에 어깨나 등을 활처럼 구부린다는 뜻이 됐다. 등허리가 튀어나왔다 해서 꼽추를 'hunchback'이라 한다.

그러던 'hunch'가 1904년부터는 '예감'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 미국인들은 어떤 예감이 떠 오를 때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튀어나오는 모양이다.

'hunch'는 송이, 뭉치 또는 다발을 일컫는 'bunch'와 말 뿌리를 같이한다. 해리 벨라폰테의 히트곡 '바나나 보트 송'의 중간부분에 "Six foot, seven foot, eight foot BUNCH!" 하는 바로 그 'bunch'도 유통불통 튀어나온 바나나를 다발로 둑어 놓은 자마이카의 야간노동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그들이 아침 해가 밝아오자 어서 집에 가려고 "Daylight come and me wan' go home." 하며 소리치는 칼립소 리듬의 민요다.

이제 나는 '현지'와 '번지'와도 발음이 비슷하고 운율도 잘 맞아 떨어지는 우리 말의 '눈치'에 대하여 논설을 펼칠 요량이다. 눈치 빠른 당신이 이미 예감했겠지만 꼽추나 바나나 뭉치에 비하여 '눈치'는 매우 섬세한 분위기를 풍긴다.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볼 때 주로 결눈질을 하기 마련이면서 그 다소곳한 태도에는 전혀 우락부락하거나 돌출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어령 석학의 말대로 눈치란 강자에 대처하는 약자의 방어기전이다.

오래 전부터 눈치의 어원에 대하여 궁금해 왔지만 우리말 어원학의 태두인 김민수와 서정범 같은 국어학자들은 눈치에 대하여 별 언급이 없다.

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눈치는 눈과 '치'의 합성어로 보인다. 길이를 재는 우리의 옛날 단위인 '치'는 한자의 촌(寸)에 해당하고 그 길이가 약 3.03cm라 한다. 줄잡아 성인의 눈 길이가 아닐까 하는데.

눈치를 살핀다는 말은 눈의 치수를 잰다는 뜻이다. 눈이 영혼의 창문이라는 격언도 있거니와 상대방 눈의 가로 세로를 측정한다는 말은 즉 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나 진배없다. 눈치가 없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눈치가 있는 사람은 독심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타고난 감수성이 따라 그 속도가 빠르거나 느린 사람을 두고 눈치가 빠르거나 느리다고 우리는 무심코 말한다.

영어에는 눈치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우리말의 눈치가 들어간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무척 까다롭고 힘이 들기 때문에 천상 그때그때 의역을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미국인들은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체질을 타고난 것 같다. 그들은 우리 한반도처럼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침략근성에 시달리는 고초를 겪지 않은 운 좋은 사람들이다. 눈치를 살피는 시각적 감수성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혹은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통명스러운 언어감각만 발달한 그들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의 눈치문화는 비언어(非言語)에 깊은 뿌리를 박았다.

나는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는 우리 옛말을 아주 좋아한다. 어릴 적에 할머니에게서 자주 듣던 이 말은 매번 들을 때마다 비릿한 새우젓냄새가 내 미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당신도 한 번 생각해 보라. 절에 가서 눈치도 없게시리 "새우젓 좀 먹을 수 있습니까?" 하며 큰 소리로 물어보는 사람이라면 내게서 정신감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그토록 상대의 체면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아뿔싸, 내가 바로 그 눈치 코치가 없는 당사자라면?

설마 그렇기야 하겠는가. 딱히 이 경우에 쓰는 영어 표현이 갑자기 떠오른다. - I can take a hint! -- 나도 눈치가 있다!



달 빨아들이기

아프리카 마사이족은 인사할 때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다. 물이 귀한 건조지대에 살면서 서로에게 수분을 전해 주는 습관이란다. 결혼식에서도 하객들이 뱉 둘러서서 신부에게 성심성의껏 침을 뱉는다. 마사이 족의 해와 달에 대한 신화가 있다. - 사소한 일로 남편인 해가 아내인 달을 때린다. 달이 덤벼들어 해의 얼굴을 할퀸다. 해는 달의 얼굴에 수많은 상처를 입히고 한쪽 눈알을 빼 버린다. 남성우월자 해는 자기의 흉한 짚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더 강렬하게 빛을 내뿜는다. 눈이 부셔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남들에게 그의 체통은 유지된다. 달은 상흔을 감추는 기색도 없이 밤하늘을 마냥 은은하게 밝혀준다.

이 신화가 마음에 든다. 인사법만큼이나 기존관념을 깬 사고방식에 매료된다. 해는 가까이하기에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거늘. 불처럼 위험천만한 해에 비하여 달은 물처럼 친근하게 당신에게 접근한다. 해의 양기와 달의 음기가 서로 상처를 주다니! 참으로 마사이족스러운 발상이다.

최명희(1947~1998)의 대하소설 '훈(魂)불'에 흡월(吸月)이라는 한자어가 나온다. 11세기 이전부터 알려진 '흡월정법(吸月精法)'은 이렇게 가르친다. - 양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리고 서서 양손을 들어 달을 품는 자세로 달을 응시한다. 온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리고 달의 정기를 코로 천천히 들이마신다. (네이버에서 발췌)

흡월에 대응하는 옛 선비들의 거풍(舉風)은 또 어떤가. 심산유곡에서 성기를 대놓고 내놓아 바람과 별을 쏘여 남성의 기를 증강시키던 우리의 선조들은.

이규보(1168~1241)의 영정중월(詠井中月, 우물 속 달을 노래하다)은 달을 탐하는 중을 이렇게 읊는다. - 산속 중이 달빛을 탐하여/ 병 속에 물과 달을 함께 길었네/ 절에 다다르면 곧 깨달으리/ 병을 기울이면 달 또한 비워지는 것을. - 달빛도 공(空)이라는 메시지다. 색즉시 공으로 텅 빙 달이여!

2020년 추석에 나훈아가 성대한 노래잔치를 벌였다. 군대 시절 전방근무를 할 때 유행하던 그의 히트곡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련히 떠오른다. 같은 무렵 김세레나의 히트곡에서 시집간 갑순이와 화가 나서 장가간 갑돌이가 첫날 밤에 제각기 달을 보고 울던 3박자 멜로디도 울린다. 60년대 말경 우리는 한국에서 눈물하고 달 빼 놓으면 어찌 살았나 싶지.

나훈아의 '님 그리워'에 이런 가사가 나온다. "저 달보고 물어본다 님 계신 곳을 / 울며불며 찾아봐도 내 님은 간 곳이 없네~♪" 이때 '님'은 임자, 임금님, 담임, 황진이의 '어른님', SNS에서 잘 쓰이는 호칭 '님'과 말뿌리가 다 같다. 나훈아의 '님'에는 사랑하는 여인은 물론 임금님이라는 뜻이 함축돼 있다. 성삼문의 "님 향한 일편단심," 하는 바로 그 '님'!

그는 1982년 히트곡 '울긴 왜 울어'의 시작에서 "울지 마~♪" 하며 고함친다. 더 이상 울며불며 달에게 님 계신 곳을 물어보지 않고 그 대신 최근 곡 '테스 형'에서 소크라테스에게 술한 질문을 던진다. 세상이 왜 아래, 사랑은 또 왜 아래, 세월은 또 왜 저래, 하며 슬픈 듯 한탄하듯 묻는다. 예나 지금이나 나훈아는 질문한다.

'ask for the moon'이라는 관용어를 생각한다. 직역으로 달을 원한다는 뜻이지만 불가능한 것을 원한다는 의미다. 나훈아는 달을 원하는 것처럼 부질없이 님을 찾지 않기로 마음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려니 차라리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적 투정을 부리고 있다.



멘붕 (Men崩)

병동환자 브루스가 틈만 생기면 주장한다. "I am not mental." - 표준영어로 "I am not mentally ill." 할 것을 줄여서 하는 말. 자기는 정신병이 없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병동에 체류할 이유가 없으니까 어서 퇴원을 시켜달라는 압력이다. 병원 맡고 딱히 살 곳이 없을 뿐더러 설사

이 시집을 왔지만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부모 문안을 드렸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며느리가 실수를 해도 모든 것을 웃어넘기셨다. 시어머니 노릇을 할 것이라고 행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직 사랑으로 감싸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고부간의 갈등을 전혀 몰랐던 젊은 나는 행운아였다. 어머니는 전혀 신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들에 대한 절대적 사랑으로 아내를 감싸 안아주셨던 것이다. [다음호 2편이 계속 됩니다.]

편집자주;
임낙중 선배님이 가늘고 깨끗한 육필

있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강짜를 부리는 환자를 받아주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없다. 그도 나도 '멘붕'이 일어날 정도다.

멘붕은 브루스가 떠들어대는 'mental'의 'men'과 붕괴(崩壞)의 첫 자의 합성어로서 2000년대부터 한국에서 유행한 말이다. 2012년에 그해 최고의 유행어로 뽑혔다. 정신이 무너지고 깨진다는 뜻. 실성했다, 정신줄이 나갔다, 심하게는 미쳤다는 표현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영어와 한자어 조가리를 붙여서 만든 신조어의 신선히 때문인지 지금껏 인터넷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건전한 몸에 건전한 마음, A healthy mind in a healthy body'라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격언을 유식한 티를 내면서 'Mens sana in corpore sano'라고 라틴어로 말해 보라. 이때 첫 단어 'mens' 가 바로 멘붕의 '멘'이다.

15세기 초부터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한 'mental'은 전인도유럽어로 '생각하다'는 뜻이었다. 그 뿌리가 'comment, 언급하다', 'dementia, 치매', 'mentor, 스승' 같은 단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정신이상'이라는 뉘앙스는 1927년에 쳐음으로 생겨났다고 한다.

19세기 초에 태어난 'mental illness'라는 컨셉에서 뒷부분을 슬쩍 빼고 말하다가 그렇게 변천한 것이다. 당신과 나는 말을 완곡하게 하려고 말끝을 생략하거나 흐리는 세련된 수법을 쓸 때가 많다. 그러나 브루스가 'I am not mental', 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어원학적 차원에서 그는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역설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무념무상의 경지일까. 정신이 나갔거나 열이 빠졌다는 고백?

나는 '건전한 몸에 건전한 마음'이라는 슬로건과 '건전한 마음에 건전한 몸' 사이를 바쁘게 왕래한다. 전자가 유물론, 후자는 유심론이라 둥동그리면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 유물론적 정신과의사는 약물치료를 신봉하는 반면에 유심론에 심취한 정신과의사는 언어를 매체로 하는 정신치료에 기대는 수가 많다.

나는 유심론에 치우치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당신에게 솔직히 고백한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학설을 추종하고 있다.

"브루스야, 네가 정신질환이 있건 없건 지금 우리 관계가 너는 환자, 나는 의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는 상대가 분명한 대답을 얻는 기쁨을 전해주는 아량이 없는 성격이다. 아니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다.

나는 브루스의 멘붕을 이런 말로 치료한다. "서로 역할을 바꿔서 내가 너, 네가 나라면, 다시 말해서, 내가 환자이고 네가 정신과의사라면 나라는 환자에게 무슨 충고를 해줄 수 있겠느냐?" 잠시 후 그는 일갈한다. "I would say, 'Bruce, you gotta take it easy'." - "브루스야, 쉬엄쉬엄 해야 돼", 라고 말할 겁니다."

정색을 하고 그가 한 말을 곧이곧대로 그에게 반복한다. 그는 표정을 영망으로 일그러뜨리면서 앞니가 많이 없는 입을 벌리고 허죽허죽 웃는다. 저 즐거워하는 '멘탈'이 얼마나 같지 모르겠다.

주로 5-6년 전에 이사를 오셨다. 이 도시 근교에는 현재 20여 명의 서울의대 동문들이 사시고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 의대 동창회 본부 사무실도 여기에 있다.

임 치과를 개업하시던 선배님의 아버님은 충청남도 대전에서 명의로 유명하신 분이었다. 대전에서 원동 국민학교를 다녔던 저도 9살 때 어머니를 따라가서 그분한테서 치료를 받던 생각이 난다. 헤드라이트인지, 반사경인지 쓰시고 나에 대한 치료를 끝내시고 내가 참을성이 많은 어린이라고 칭찬을 해주신 것이 72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난다. 1953년 경이다.



온기철(71, 남가주)

17. 노량해전과 이순신의 최후



참고: 100년 전 한국을 찾았던 영국 출신 여성 화가 엘리자베트 키스가 그린 용맹함과 카리스마가 흘러넘치는 조선 시대의 무인. 이 그림을 발굴한 재미 한국인 학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www.koreaherald.com
 1.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610000598>
 2. <https://www.youtube.com/watch?v=FXxMhm5MKGU>

명군은 조선이 원하는 대로 싸우지 않았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이순신은 남해로 내려갈 수가 없었다. 일본 수군이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고작 13척의 조선 수군 보다 훨씬 많은 전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순신은 일본 수군의 주격을 피해 위도, 고군산도 쪽으로 북상했다. 일본 수군은 남해를 장악하고 있었고 지상군은 이미 경상도, 전라도를 점령하고, 충청도 일부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남해안과 전라도 서해안 마을에서는 일본 수군의 약탈과 살상이 빈번했다. 이순신이 어느 한곳에 정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일본 수군을 괴멸시켜서 제해권이 조선 수군에게 완전히 넘어 간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의 전황을 살펴보면 “이순신이 일본군의 주격을 피해서 서해안을 따라 북상했다”라는 주장이 더 합리적이다.

<https://tadream.tistory.com/12137>
 [이순신 正論 3] 명량해전 이후 조선수군과 일본수군의 행적 - 임원빈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CZX0BJ9ryQE](https://www.youtube.com/watch?v=CZX0BJ9ryQE) 명량해전 이후 조선수군과 일본수군의 행적 제14회 이순신학술세미나 [이순신 正論 3: 임원빈 3] 임원빈 2012.04.25 조선수군: 고군산도까지 작전상 후퇴.

이순신은 일본 수군을 염탐하며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목포 앞바다 고하도에 일단 정박했다. 군량을 마련하고 군사를 정비하기 위해서였다. 육지가 일본군에게 점령되어 이곳 앞바다는 피난선 왕래가 빈번했다.

이순신은 이곳을 통과하는 배에 통행첩을 발급해 주고 통행료 조로 일정량의 양식을 받았다. 피난선은 이순신의 보호를 받으니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고 이순신은 거두어 들인 통행료로 군량미를 비축할 수 있었다. 이순신은 이곳에서 108일 간 머물렀다.

(1597년 11월 6일 정비록에서)

1597년 11월 20일 완도에 정찰 나갔던 배가 돌아와 일본 배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순신은 완도 옆 고금도로 근거지를 옮겼다. 이곳에서 이순신은 판옥선을 건조하여 13척을 50척으로 늘렸다. 이순신의 명성을 들은 피난민들이 고하도와 고금도 그리고 근처 섬으로 모여들었다. 해안지방이 일본군 세상이어서 안심하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순신은 이들을 정착시키자는 부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판옥선 만들기 등 군을 재정비하는 데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사를 짓게 했다. 청장년들은 기꺼이 병사가 되었다. 육지에서 군사를 모집하면 반 이상이 도망가 버리는 현상과는 정반대로 이순신은 8천 군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울산, 사천, 순천을 거점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의 수많은 왜성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동로군은 울산으로 중로군은 사천으로 서로 군과 수로군은 순천을 같은 시기에 공격했다(4로 병진책). 수로군의 지휘관은 도독 진린이었다.

1598년 7월 16일 진린은 400여 척의 전선과 5000 병력을 이끌고 고금도에 도착하여 이순신과 합류했다. 전쟁이 명군 지휘하에 진행되고 있어서 이순신이 진린의 명에 따라 전쟁을 해야 했다. 진린은 성격이 난폭하고 진중한 장수가 아니어서 이순신이 지휘권을 빼앗기면 일본 수군에게 패전할 우려가 커다. 유성룡은 정비록에 진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진린은 성질이 거칠고 포악하고 교만한 자다. 진린이 한양에 이르렀을 때 상(선조)이 청파에 나가 전송하였다. 진린은 자기 군인들이 (조선의) 수령을 구타하여 모욕을 주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찰방 이상규의 목을 매어 끌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보고 역관을 시켜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나는 …재상들에게 … ‘장차 이순신의 군사가 패하겠구나’라고 말했다. 진린과 같이 있으면 행동을 견제 당할 것이고 의견이 맞지 않아… 장수의 권한을 빼앗기고 군사들이 학대 당할 것이다.”

이순신은 유성룡 등과의 교신에서 진린의 성품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대쪽 같은 성격으로 부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순신은 의외로 유연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한다.

진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나가서 그를 마중했다. 진수성장을 차려 진린을 상석에 앉히고 극진히 대접했다. 7월 27일 절이도에서 조선군 송여종이 8척의 배를 끌고 나아가 30척의 일본 수군과 접전을 벌려 승전했다. 명군과 전혀 상관없는 전투였다. 전과가 전적으로 조선군 몫이라는 보고에 진린은 부하들에게 무척 화를 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이순신은 수급을 전부 진린에게 주고 승전을 명군이 한 것으로 보고하라고 했다. 진린은 크게 기뻐하며 “본국에서 장군의 명성을 들었는데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고 감탄했다고 한다.

일단 진린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지만 명군이 마을에 들어가 아녀자를 희롱하고 약탈하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또한 명군 장수들은 조선 장수들을 업신여겼다. 천자의 군대가 조공국을 구하려 왔다는 교만 때문이었다. 어느 날 이순신은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절수 명령을 내렸다. 모두 짐을 싸 들고 떠나는 모습이었다. 이를 본 진린이 이순신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다. 이순신이 대답했다.

“조선 백성들은 천자의 나라에서 온 군대를 보고 부모처럼 의지하고 우러렸는데 오히려 괴롭힘을 당해 백성들과 군사들이 모두 도망가고 있습니다. 병사가 없는데 어찌 대장으로 훈자 남아 있겠습니까? 나 또한 다른 섬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짐을 싸서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진린이 즉석에서 사과했다. 이순신은 명나라 군사 저벌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진린은 흔쾌히 이를 허락했다. 이후 명나라 장수들은 조선 장수들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명나라 병사들의 행패는 사라졌다. 진린은 이순신을 “이야” 또는 “노야”라고 불렸다. “야”는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어른을 호칭하는 존칭이라고 한다. 진린은 이순신에게 명수군의 지휘권을 주었다. 임진 전쟁이 명군 장수 지휘하에 진행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순신의 조명 연합 수군 지휘권 장악은 과격적인 일이었다.

이순신의 출중한 부대 운용과 전술에 감탄한 진린은 이순신에게 “작은 나라에서 살 사람�이 아니다. 명나라에 가서 같이 살자”라고 자주 권했다고 한다. 이순신은 이를 번번이 거절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전쟁으로 백성들의 왕에 대한 원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순신의 명성은 백성들을 감복 시키고 있었다. (참고: 남도일보; 전라도 역사 이야기-57.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

명군은 울산, 사천, 순천 왜성 공격에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다행히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했다. 본국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은 일본군은 살아남아 무사히 돌아가기 위해서 명군에게 협상을 청했다. 명의 장수들은 남의 나라를 위해서 자진해서 후퇴하는 일본군을 공격하여 자신의 병력을 손실시킬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들은 일본군으로부터 최대한으로 이득을 취하고 본국으로 보내 주면 그뿐이었다.

고니시 유카나가는 순천성에 유정의 서로군과 조명 연합 수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고니시는 유정과 진린에게 여러 차례 뇌물을 주고 순천 왜성 탈출을 약속 받았다. 고니시는 통신선 한 척만 빼여나갈 길을 열어 달라고 부탁했다. 유정과 진린은 이를 흔쾌히 허락했다.

시마즈 요시히로와 소 요시토시의 일본군 함대 500척은 각각 사천과 남해 앞바다에 주둔하고 있었다. 고니시가 요구한 통신선은 연락병을 태우고 사천으로 가서 시마즈에게 자신과 자신의 병력을 구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마즈는 순천성에 갇혀 있는 고니시를 구하기 위해서 주위의 모든 함정을 끌어모았다. 모두 1000여 척이었다.



노량해전 지도 *충무공 이순신 불패신화

노량해협은 육지와 남해도 사이의 아주 좁은 바다 길이다. 이순신은 일본 수군이 남해도를 돌아서 순천으로 향하기보다는 빨리 갈 수 있는 이곳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해도 노량 앞바다에 복병선을 매복시켰다. 노량해협을 통과하면 바다가 좀 넓어지기는 하지만 앞에 대도와 죽도 가로막고 있다. 이순신은 죽도의 남쪽 남해도 관음포에 본대를 대기 시켰다. 북쪽 죽도에는 진린의 명수군이 일본 수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선의 판옥선은 명군의 배에 비해서 전투력이 월등했다. 명의 장수들은 판옥선을 타고 명 함대를 지휘했다.

1598년 11월 18일 새벽 시마즈 함대가 노량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발견한 조선

수군 복병선은 잠시 공격을 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일본 함대는 이를 맹 추격했다. 노량해협을 막 빠져나오자 명군 선봉장 등자룡이 판옥선을 타고 포탄을 퍼부었다. 뒤를 이어 진린의 명 수군 본대가 북쪽에서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남쪽에서 협공했다. 당황한 시마즈는 좁은 해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명 수군을 공격했다. 판옥선이 침몰하고 등자룡은 전사했다. 시마즈는 명의 함대가 취약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진린의 함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일본 함대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위기에 처한 진린을 이순신이 구출했다. 그리고 시마즈 함대를 노량해협으로 몰아넣었다. 좁은 해협에서 이순신은 일본배에 접근하여 함포 사격과 화공으로 공격했다. 수많은 일본 함대가 불에 타서 침몰했고 병사들은 아우성을 치며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위기에 처한 시마즈는 노량해협을 빠져나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남해도 관음포 쪽으로 향했다. 시마즈는 관음포가 육지로 막혀 있지 않고 탁 트인 바다라고 오인했다. *관음포 입구 육지를 청색으로 위장했다는 기록도 있다.

관음포로 들어간 일본 수군은 독안에 든 쥐가 되었다. 앞에는 육지요 뒤에는 사신 같은 이순신이 추격하고 있었다. 고니기에게서 뇌물을 받은 진린은 이순신에게 공격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지금 저를 한 명이라도 살려 보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침공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진린도 이순신의 단호한 결심에 어쩔 수 없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일본군은 공포에 떨었다. 급하면 쥐가 고양이를 끈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때 갑자기 날카로운 총성이 들리면서 이순신이 쓰러졌다. 가슴에 총탄을 맞은 이순신은 “싸움이 한창 급하니 절대로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마라”라고 아들 이회와 조카 이완에게 당부하고 숨을 거두었다. 유자를 빙들어 이회와 이완은 북을 올리며 기를 휘둘러 병사들을 독려하였다. 정오쯤 되어 시마즈 함대 대부분은 침몰했다. 1천 척의 배가 겨우 50척이 되었다. 그러나 시마즈 등 지휘부는 관음포를 빠져나와 남해도를 돌아 거제도로 향했다.

일본군 병사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다. 배를 버리고 남해도 육지 등 근처 도서에 상륙했다. 조명 연합군 수군은 이들을 추격하여 살해했다. 남해도에는 대마도 주 소 요시토시의 진영이 있었다. 소 요시토시는 도주 한 병사들을 일부 구출하여 배에싣고 거제도로 도주했다. 그의 진영을 접수한 진린은 군량 만석과 수많은 우마를 취득했다고 한다.

진린은 전투가 끝나자 이순신을 찾았다. 이순신 진영에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진린도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곧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순신은 그를 구출해 준 생명의 은인이었고 사로군 중 유일하게 수로군이 승전을 하게 된 것도 이순신 덕이었다. 역사의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진린은 사람을 보내 자기를 구해준 것을 사례했는데 …이순신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서 땅 위로 몸을 던지면서 ‘나는 노아께서 생시에 오셔서 나를 구원한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 온 군대가 통곡하여 곡성이 바다를 진동 시켰다”

고니시 유카나가(소서행장)는 순천성에서 탈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전투가 끝나갈 무렵 고니시는 약속대로 신호를 보내고 순천 왜성을 빠져나왔다. 신호를 확인한 유정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순신이 전사하고 일본 수군의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조명연합군이 순천 왜성에 신경을 쓸 리가 없었다. 그는 남해도 남단을 돌아 거제도에 도착했다.

거제도에는 패장 시마즈 요시히로와 소 요시토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몇 척 안되는 전함을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이끌고 부산으로 향했다. 울산과 남해안에 있는 모든 왜성을 버리고 일본군은 부산에 집결해 있었다. 11월 24일 일본군은 본국으로 철수를 시작했다. 12월 중 철수를 완료한 그들은 도요토미의 사망을 실감했다. 그러나 권력은 이미 에도지방의 실세 도쿠가와 이에야스(덕천가강)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7년 전쟁은 막을 내린다. 그러나 일본 남서부 지역 하급 사무라이 출신었던 도요토미 심복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배하던 200여 년 동안 이를 갈고 때를 기다렸다. 이들은 명치유신의 주역이 되었다. 에도 막부를 접수하고 일본제국을 건설하여 1910년 조선 정복의 꿈을 달성한다.

1598년 11월 24일, 일본군이 철수하던 날 이순신의 사망에 대해서 선조는 비변사에 통보한다. “알아서 처리하라”였다. 충무공은 한참 후 인조가 내린 시호이다.

선조는 전쟁 최고의 공을 세운 이순신에게 이에 합당한 공치사를 하지 않았다. 당파를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 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 기록에서 눈에 띤다.

17세기 조선의 여러 역사책에 이순신이 일부러 갑옷을 벗고 노량해전에 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이른바 이순신 자살설이다. 그럴만한 정황은 있지만 이순신의 성품을 고려해 보면 자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의 왕과 조정은 이순신을 그의 공에 합당한 대접을 하지 않고 권력의 입지를 위해서 그를 깎아 내린 것은 물론 처형하려 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 결과 300여 년 후 두 번째 침략한 적은 원래의 야욕이었던 조선 정복에 성공한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순신은 5천년 한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고 유능한 장군이며 훌륭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성웅 이순신이라고 하지 않는가!

18. 결론: 7년 전쟁의 영향 조선은 반성하지 않았다.

1592년 임진년에 시작된 일본의 조선 침략 전쟁은 7년 동안 계속되어 1598년에 끝났다. 임진전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 현대 감각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침략기 (1592-1593), 소강기 (1593-1597), 재침기 (1597-1598)로 나누어 서술하면 전쟁의 흐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전쟁은 침략기 1년과 재침기 1년 도합 2년이었지만 조선이 입은 피해는 7년 동안 계속되었다. 인구의 1/3이 죽었다. 경작면적 2/3가 손실되었다. 국토는 초토화되었다. 농사지어야 할 장정들이 전쟁에 동원되었다. 기근이 계속되었다. 먹을 식량도 부족한데 그나마 일본 군이 약탈해 갔다. 명군 군량미를 조달한다고 빼앗아 갔다. 인육까지 먹는 사례가 빈번했다. 거기다 전염병까지 퍼졌다. 전쟁에 나가 죽고 돌아 죽고 병들어 죽었다. 상당한 숫자의 조선 사람들이 일본과 명나라로 끌려갔다.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지독하게 미워하기 시작했다. 특히 재침기(정유재란) 동안의 무차별 살상은 일본 사람 혐오가 조선 사람들 뼈골에 사무치게 했다. 전시에 설치된 비변사의 힘이 막강해졌다. 비변사는 무장과 고위 관리로 구성된 전시 관리 기구였다. 전쟁이 끝났지만 정부 최고 결정권이 의정부로 넘어가지 않고 비변사에 남아 있었다. 왕권이 약화되고 조정 대신들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는 후에 세도정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 후 일본은 태평성대를 맞이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는 일본 내의 대부분 다이묘(영주)들을 제압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덕천가강)만은 서로 화해하는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에도 근처의 일본 최고의 다이묘였다. 조선 침략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도요토미가 신하들에게 다섯 살 난 자신의 아들을 섬기고 나라를 유지하라는 유언을

무시하고 반기를 들어 도요토미 지지세력과 전쟁을 하여 전권을 장악했다. 소위에도 막부 시대의 시작이었다.

성리학을 도입하여 신분제도를 확립했다. 사농공상이었다. 일본의 사는 무사 즉 사무라이이고 조선의 사는 선비이다. 근대 사회에서는 신분제도가 차별의 대명사이지만 당시에는 사회질서를 의미한다. 반전 평화주의자인 그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임란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고 통신사 교환을 성사시켰다. 일본으로 잡혀간 조선 도공들은 일본에 도자기 기술을 전수하여 도자기 문화를 꽂피운다. 에도 시대의 도쿄는 인구 백만의 세계 일류 도시가 되었다. 태평성대라는 말이 유행하게 했다고 한다. 아이로니컬하게도 한반도의 비극은 일본의 부흥을 가져왔다. 임진전쟁 후 태평성대는 한국전쟁 후 일본의 재기를 연상하게 한다.

여진의 어부지리

조선은 압록강 북쪽의 여진족을 다스려 왔다. 명나라 또한 요동에 군대를 파견하여 이들을 견제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동안 명이 조선에 보낸 군대는 주로 요동에 주둔하던 군대였다. 전쟁 후 명은 더 이상 요동군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다. 여진을 억압하던 조선과 명이 임진왜란으로 쇠약해지자 여진은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건주 여진, 서해여진, 여인여진 3파로 갈라져 있던 여진을 건주여진이 통합하고 금나라(후금)를 세웠다. 후금은 1627년(정묘호란)과 1637년(병자호란) 두 차례 조선을 침략하여 굴복시키고 1644년에는 명을 멸망시켜 청나라를 세운다.

반성하지 않은 조선

312년 후에 일본에게 멸망

이순신이 바다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일본군과 싸워 이겼다면 유성룡은 혼자 몸으로 못난 임금과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대신들을 달래가며 7년 전쟁을 운영했다. 도원수 권율과 이순신을 추천한 사람도 유성룡이었다. 1598년 남인에 속해 있던 유성룡은 북인의 탄핵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안동 하회마을로 돌아온 유성룡은 7년 전쟁의 자초지종을 기록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책의 이름을 징비록이라고 했다. 1633년 아들 유진이 서애집(유성룡의 호)에 징비록을 넣어 간행한 것이 처음 징비록 출간이다. 1647년에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징비록이 출간되었다.

조선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1600대 말에 이 책이 일본에서 출간되었다. 그리고 근세에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되었다. 아마 그들은 조선 정복 실패의 원인을 공부하며 노심초사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이다. 징비록은 중국에서도 출간되었다. 전쟁터는 한반도였지만 전쟁의 주체는 일본과 명나라였다. 중국이 이 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조는 일본을 물리친 공을 자신을 따라 피난 다닌 문신과 명나라에 돌리고 실제로 전쟁 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무신들은 훌륭했다. 지상군의 주력이었던 의병장들은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모함의 대상이었다.

만주에서는 조선과 명이 일본과의 전쟁에 여념이 없는 동안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선은 명나라가 조선을 구해 주었다는 의리에 얹매어 명나라 섬기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명나라는 이미 쇠퇴해가고 있었다.

조정은 명을 섬겨야 하느냐 후금(여진, 청)을 섬겨야 하느냐로 갑론을박하고 있었다. 광해군은 종립외교를 주장했으나 조정 대신들은 명에 대한 의리와 여진이 오랑캐라는 점을 들어 친명 외교를 선택했다. 집권 보수 세력인 서인은 소 중화주의를 선택했다. 망해버린 명의 중화주의를 조선이 승계하여 명이 부활할 때까지 중화주의를 유지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세 번 절하며 이마를 9번 땅에 찌어 피가 나는 굴욕을 당하고도 겉으로는 청을 섬기지만



Joe Hyoyun Yun (69, MI)

In early Sunday morning hours, one more hour of daylights,
Sipping coffee and ginger lemon tea, said to be good for morning coughs.
Looking and listening out the window, as there was nothing else to do.

Tall maple trees and oak trees turned pallid gray,
Hardly recognizable, as if we turned off the light,
Verdant, mossy colors of life are now yesterday's shade.
A few foliations of amber yellows, dazzling reds and darkly browns,
Still in their final struggles on the branches and mother boughs,
To no avail but the last kisses of farewell

Suddenly gentle Zephyrine turned jealous harsh breaths of wind,
Came across the mountains and lakes, to trees to trees,
Only to show the nakedness of what they used to caress.
Pensive looking birds seem so glum, as they lost the
supernal places to hide and sing,
Looking and listening to barren field of change, while saying,
“That's not the way we would sing, that's not the way we would paint,”
“And that's not the place we would flock our feathers”

In early Sunday morning hours, looking and listening out the window,
Too early to read anything, as my eyes are still deeply shadowed
And love is withering on the boughs.

실제로는 명의 전통을 지키는 정책이 병자호란 후에도 계속되었다.

청은 대단히 발달된 나라였다. 그러나 조선은 서양문물을 물론 청나라에서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이 오랑캐이고 조선은 명의 전통을 이어 받은 소중화국이기 때문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조선이 청을 선택하지 않고 명에 매달렸다고 나무라지만 임진전쟁 후 가장 중요한 일은 부국강병이었다. 쑥대밭이 된 국토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뼈골이 사무치게 이래서는 안된다고 느낀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다. 바로 실학자들이다. 그들은 윤리 도덕만 따지는 성리학 대신 삶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학문을 익혀야 백성들이 편하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하게 여기던 상공업을 발달시키자고 했다. 청나라에 가서 이런 것들을 배우자고 했다. 나라를 지키려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했다. 17, 18, 19세기 실학자들의 주장은 구미의 계동 학자들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 계동사상은 근대 문명과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었다. 실학자들은 조선의 계동학자들이었다. 조선의 왕과 위정자들은 보물 같은 실학을 버렸다.

조선은 이순신을 죽이려 했고 의병장을 적대시했으며, 청을 무시하고 실학자들의 절규를 못 들은 척 했다. 그 결과는 한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다. 조선은 312년 후에 일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라를 송두리째 바친다.

임진전쟁은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의 진가를 느끼게 한 최초의 전쟁이었다.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태평양) 사이에 존재한다. 도요토미가 일본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일본 열도에는 나라가 없어서 “왜”라고 했다. 태평양에는 아직 조선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었다. 조선은 대륙세력과 잘 지내기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태평양에 일본국이라는 강력한 태평양 세력을 만들었다. 임진전쟁은 대륙세력인 명나라와 태평양 세력인 일본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조선에서 싸운 전쟁이다. 전쟁 중 대륙 세력 명과 태평양 세력 일본이 한반도의 분할을 놓고 협상을 했다는 것은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1900년 초반에 러시아와 일본도 한반도를 38선 아니면 39도 선에서 분할할 것을 두 나라가 협상했다. 그리고 20세기에 드디어 한반도의 분할은 현실화되었다.

19세기 말에는 대륙 세력인 청나라와 태평양 세력 일본이 조선을 놓고 싸웠다

(청일전쟁). 일본이 이겼지만 새로운 대륙 세력인 러시아의 간섭으로 조선 점령에 실패했다. 그러나 10년 후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러일전쟁)에서 이겨 조선을 강점했다. 임진전쟁에서 일본이 명을 제압하지 못해서 조선 점령에 실패했지만 1910년에는 태평양 세력 일본이 두 대륙 세력인 청나라와 러시아를 모두 싸워 이겼다.

20세기에는 일본 외에 미국이라는 또 하나의 태평양 세력이 등장한다. 대륙에는 소련과 중공이라는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가 건설되었다. 대륙 세력인 소련과 태평양 세력인 미국은 힘을 합쳐서 일본과 전쟁을 했다. 일본의 패배였다. 일본 영토였던 한반도는 승전한 대륙세력 소련(러시아)과 미국의 전리품이 되었다. 당연히 반으로 갈라 먹어야 했다. 분단의 큰 그림이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은 대륙세력인 소련과 인공이 시작했지만 결국 대륙세력인 중공과 태평양 세력인 미국이 한반도에서 싸운 전쟁이 되었다.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휴전 상태이다. DMZ는 태평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완충 지대이다. 태평양 세력은 한국-일본-미국이며 대륙 세력은 인공-중국-러시아이다.

한국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부터 쓰인 일본 혐오 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일본-미국으로 만들어진 삼국동맹(Trilateral Alliance)을 운영하고 있다.

대륙세력은 한반도를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태평양 세력은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전진기지로 차지하려고 한다. 도요토미는 조선보고 명을 칠 터이니 길을 내 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또한 대륙 세력은 태평양 세력의 대륙 진출을 방어하는 완충지대로 태평양 세력은 대륙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방어하는 완충지대로 한반도를 이용하려고 한다. 중공이 압록강을 건너 한국전쟁에 개입할 때 인공(북한)은 중공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방어해야 할 지역이라고 했고 미국이 한국(남한)에 파병할 때 남한은 일본 방어에 없어서는 안 될 지역이라고 했다. 지금도 북한과 남한은 중국 방어와 일본 방어에 없어서는 안 될 지역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태평양에 있고 일본 방어는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 따라서 아무리 서로 미워해도 일본과 남한은 우방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삼국동맹(Trilateral Alliance)은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의 자연적인 산물이다. (임진전쟁을 마칩니다.)

2024-25 회비 및 후원금 현황

남명호 53대 회기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1954	이동식	1956	박상기	서상철
1958	김부근	김석희	김시한	박호현
			송세엽	이동립
			이만택	이종국
			이종용	최병두
			최창송	
1959	나길진	방석운	서경화	신한수
			최대한	최종진
			최용천	한달수
			한성업	
1960	권기홍	김완주	김인환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준명	오신중
			이덕승	이종석
			임종원	원관희
			전희근	한성수
1961	강창욱	고의걸	곽동린	김성준
			김영철	김예흠
			김유홍	김화섭
			박승균	박준환
			박호성	안창현
			이재승	이준우
			장성환	장태환
			조경하	조은순
			진창건	최용성
			한수웅	한혜원
			황현상	
1962	권의현	김석식	김한종	김호균
			남성희	민경환
			박종건	박종승
			승홍일	엄태근
			오태요	이기범
			이선택	이상무
			이석우	이태봉
			장항순	정정수
			조명호	
1963	고영희	김광섭	김승태	김충열
			김태웅	김태형
			김택수	김학중
			마동일	박승균
			송용덕	신경호
			윤영섭	윤영옥
			윤찬수	이승현
			임춘수	장인호
			조한원	진명학
			주재옥	하상태
			한기현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선원	김용두
			김태환	송원길
			신두식	양운태
			오수황	윤흥기
			이재풍	이정은
			이정필	이종성
			이주영	이중오
			이홍표	조성준
			최준희	한태진
			홍선경	
1965	구경희	김덕진	김육현	박수안
			백길영	손광호
			신백효	이범석
			이정석	이정의
			이재진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정길화
			조성구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최영인	한원민
			한재은	홍수응
1966	곽일성	김용재	김우신	김은한
			김의신	김진호
			김충규	남궁승
			이명희	이영일
			이인수	장한교
			조규웅	조의열
			최순채	최영자
			한동수	한일성
			허서룡	
1967	강명식	김동수	김규철	김인귀
			김재석	문경웅
			박정일	우준균
			유달	유진일
			육태식	이근용
			이민우	이영균
			이준식	이태안
			전영성	지일성
			최무웅	최승웅
			한서동	한영수
1968	고남규	김철	김경인	김영남
			김재관	김주평
			김진수	김희주
			김태기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윤석
			송창호	신규호
			안세현	유우영
			이건일	이병순
			이한홍	임공세
			정재성	주광국
			차재철	최철
			홍광신	
1969	김병오	김중권	김창남	도상철
			박수웅	안병일
			양재관	엄규동
			오선웅	윤효윤
			육준재	이용환
			이충호	이치훈
			임안무	임웅규
			임윤성	정한규
			조중행	최종일
			최종진	
1970	김광현	김형달	김성길	박홍식
			오석일	이명상
			여준구	장극기
			장현식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홍건	
1971	강유구	강태수	곽승용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제홍	김창구
			김효순	박동수
			박상효	배성호
			서상현	서정자
			오동환	오상현
			온기철	이원택
			이종일	이종준
			이청우	장철
			정인용	조병선
			최영철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서창호
			오수기	오용호
			유재홍	윤성수
			이신재	이철재
			장병호	정진우
			정희현	조경호
			황용규	
1973	김정용	김천일	나두섭	문대옥
			민인기	서인석
			송정자	이계석
			위장호	조재종
1974	권철수	구재훈	임자은	유영준
1975	김자억	김원정	박인영	왕규성
			전경배	조철영
			한민우	
1976	김정아	한승신	최광휘	1977
			박정식	
1978	허경열		1979	최대용
1980	박남훈	신성식	1983	심인보
1984	구철회	서귀숙	1985	김자성
1988	서예경		1989	이선규
1991	강민종		1999	김정훈
2000	박은경		2001	장세곤

Convention Donation

서윤석(68) 1,000 배성호(71) 300 서인석(73) 500 박인영(75) 100 조철영(75) 300 장세곤(01) 1,000

Research & Fellowship Donation

박명근(60) 250 임필순(60) 50 김성준(61) 100 이선택(62) 500 이재품(64) 200 구경희(65) 2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General Donation

김웅식(55)	200	서상철(56)	75	김석희(58)	200	이종용(58)	125
최창송(58)	550	한성업(59)	50	나길진(59)	75	권기홍(60)	2,000
임필순(60)	125	김성준(61)	200	김유홍(61)	375	김화섭(61)	125
박호성(61)	100	이재승(61)	50	장성환(61)	100	조경하(61)	100
안창현(61)	50	진창건(61)	100	한수웅(61)	100	한혜원(61)	100
황현상(61)	300	박종승(62)	250	오태요(62)	200	장항순(62)	75
김태웅(63)	1,000	김학중(63)	175	신경호(63)	75	신영규(63)	50
임춘수(63)	200	장인호(63)	200	조한원(63)	75	진병학(63)	75
추재옥(63)	50	권정덕(64)	200	김용두(64)	75	송원길(64)	125
이홍표(64)	275	양운택(64)	100	이재풍(64)	200	최준희(64)	300
백길영(65)	100	정길화(65)	75	채도경(65)	100	채무원(65)	200
곽일성(66)	100	김진호(66)	100	이인수(66)	325	장한교(66)	75
조의열(66)	200	김성철(67)	75	문경웅(67)	200	한영수(67)	175
김영남(68)	100	김희주(68)	100	김태기(68)	100	이병순(68)	875
이한홍(68)	50	홍광신(68)	100	차재철(68)	200	김증권(69)	200
서량(69)	3591.50	이용환(69)	100	하준영(71)	75	김형달(70)	500
곽승용(71)	75	김유식(71)	75	김일영(71)	1,000	김창구(71)	100
박동수(71)	100	서상현(71)	75	오동환(71)	100	이종준(71)	200
장철(71)	75	조병선(71)	200	하준영(71)	75		